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국립극단 2018』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도서로 국립극단의 발걸음을 여러분께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극단 2018』에 포함된
모든 원고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과 해당 저자의 소유입니다.
비상업적,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drama@ntck.or.kr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국립극단은 1950년 창단 공연 <원술랑>을 시작으로 7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극 단체 중 하나로서 400편에 달하는 공연을 제작해 왔습니다.

2010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여 서울역 뒤편 서계동에 동지를 틈 이후 연간 20여 편의 공연 제작과 각종 교육 및 출판 사업을 통해 다양한 관객과 활발히 소통하였고, 2015년에는 명동예술극장을 승계하고 시즌단원제를 도입하면서 세 개의 전용 극장과 시즌단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 전문 제작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2017년 11월 이성열 예술감독의 취임 이후 우리 연극의 맥을 잇고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동시대 연극 창작자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담은 진솔한 연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창작 신작의 발굴과 다양한 연극적 시도를 위해 작품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극작가 발굴을 위한 ‘희곡우체통’, 연출가의 자유로운 실험과 도전을 위한 ‘연출의 판’과 더불어 우리 연극의 맥을 잇는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시리즈를 새로이 기획하였습니다. 이제 2020년이면 7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극단은 우리 연극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작품들을 꾸준히 개발하는 소명을 다하며, 국민의 관심사를 무대에 담아내려 합니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NTC Korea) is one of the nation's flagship theater companies with the longest history reaching almost 70 years since its inaugural production, *Won Sul Lang – the General's Son* in 1950. In 2010, NTC Korea set a new exciting journey as an independent incorporated foundation making a new home near Seoul Station, producing about 20 productions every year. The year of 2015 marked another historical moment of NTC Korea as relaunching of the Season Company of talented actors, and its return to the old home, Myeongdong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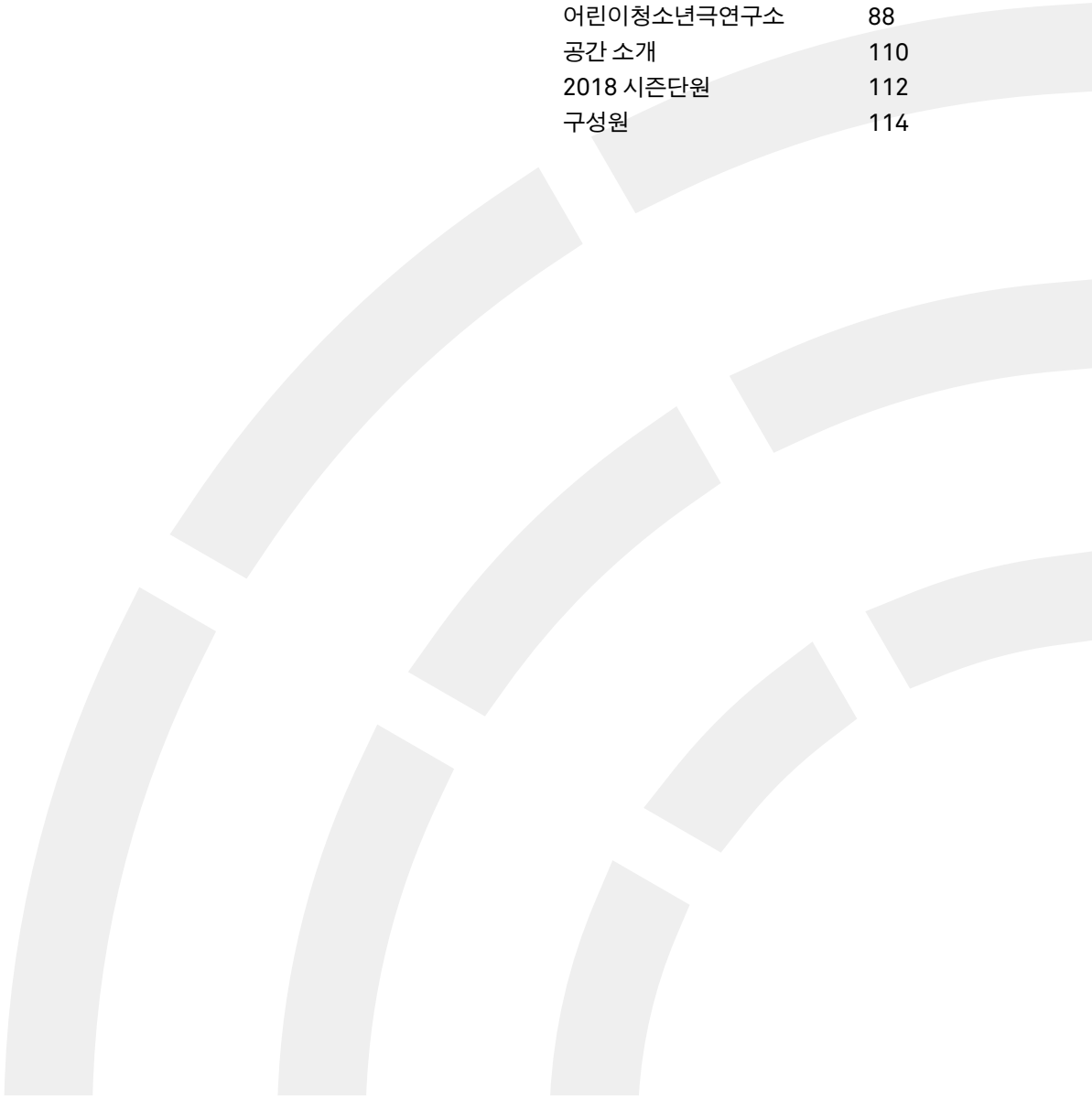
Now under the new leadership of artistic director, Lee Sung-youl since November 2017, NTC Korea aims to continue the legacy of the Korean theater and to make Korean people happy by creating excellent theater works and by delivering the stories of our time with sincerity. From 2018, NTC Korea has put an emphasis on new works development and creative experiments by launching Online Post Box for unsolicited scripts, Director's Pan for boundless challenges, and a new long-term project to recreate the Korean traditional theatrical forms. Soon reaching its 70th anniversary in 2020, NTC Korea endeavor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Korean theater, and at the same time to develop new theater works that will mirror the interests of people on stage.

차례



Index

국립극단 소개 및 목차	1
국립극단 연보	4
2018 기획공연	
제작공연	8
공동제작 및 초청 공연	62
기획대관	73
작품 개발과 연구	74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88
공간 소개	110
2018 시즌단원	112
구성원	114



1950	신극협의회 설립 국립극장 전속 단체로 창단 개관 공연 <원술랑>
1953	6.25 동안 중 대구에 재창단
1957	서울 환도 국립극장 전속 국립극단 설립 현 명동예술극장을 전용 극장으로 사용
1958	국립극단 희곡 현상공모 당선작 공연 이용찬 작, 이원경 연출 <가족>
1959	국립극장 개편으로 국립극단 해산 신탁과 민국이 전속 극단으로 활동
1962	신탁과 민국이 전속 극단에서 해제 국립극단 결단식(단장 박진) 차범석 작, 이진순 연출 <산불> 초연
1972	현 명동예술극장에서 마지막 정기 공연 이재현 작, 이기하 연출 <송학정>
1973	현 장충동 국립극장의 전속 예술단체로 활동 개관 공연 이재현 작, 허규 연출 <성웅 이순신>
1975	현 명동예술극장 폐쇄
1981	창단 100회 기념 공연 이재현 작, 허규 연출 <세종대왕>
2009	명동예술극장 재개관 정부의 ‘작은 정부’ 추진 일환으로 극단 법인화 논의 시작
2010	재단법인 설립 추진단 구성 창립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재단법인 국립극단 설립(예술감독 손진책) 서계동 열린문화공간 개관

2011	재단법인 국립극단 창단 기념 공연 소포클레스 작, 한태숙 연출 <오이디푸스>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개소
2012	삼국유사 프로젝트 <마늘먹고 쑥먹고> <꿈> <꽃이다> <나의 처용은 밤이면 양들을 사러 마켓에 간다> <멀> <로맨티스트 죽이기>
2013	희랍 희극 프로젝트 아리스토파네스 작 <개구리> <구름> <새>
2014	김윤철 예술감독 취임(2. 4) 삼국유사 프로젝트 2 <만파식적 도난 사건의 전말> <남산에서 길을 잃다> <무극의 삶> <유사유감>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
2014 — 2017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시리즈 1~8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이영녀> <토막(土幕)> <국물 있사옵니다> <혈맥> <산허구리> <가족> <제향날>
2015	시즌단원제 도입과 명동예술극장 승계로 전용 극장과 단원을 갖춘 연극 전문 제작 단체로 재탄생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통합
2016	젊은극작가전 신설
2017	이성열 예술감독 취임(11. 10)
2018	시즌단원제 정비 작품개발실 신설 ‘희곡우체통’ ‘연출의 판’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등 창작 콘텐츠 개발 사업 시작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시리즈 9, 10 <운명> <호신술> 자문위원회 신설(근현대극,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70년사 출판 3개 부문)

1950	Established as the Association of the New Theater and a resident company of the National Theater with its inaugural production <i>Won Sul Lang - The General's Son</i>
1953	During the Korean War, NTC Korea temporarily opened in Daegu
1957	After the war, NTC Korea operated Myeongdong Theater as its own venue
1972	NTC Korea held its last performance <i>Songhakjeong</i> at Myeongdong Theater
1973	NTC Korea became a resident company of the National Theater in Jangchung-dong
1975	Myeongdong Theater closed
2009	Myeongdong Theater re-opened
2010	Officially registered as an independently incorporated foundation in Seogy-e-dong
2011	Performed its inaugural production <i>Oedipus</i> at Myeongdong Theater
2015	Merging with Myeongdong Theater

2018년은 이성열 예술감독 취임(2017. 11. 10) 후 첫해였습니다. 국립극단이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이후 3대 예술감독으로서 전대의 좋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면서 동시대를 비추는 창작극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다양하게 시도했습니다. 전반적인 기획 방향은 연극이 시대와 사회를 되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담은 작품들을 제작공연과 기획초청 공연으로 선보이는 한편, 극장 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국립극단이 보유한 3개 극장이 각각의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동예술극장은 관객 중심의 극장으로, 백성희장민호극장과 소극장 판은 각각 극작가와 연출가 중심의 극장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작극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신작 희곡 발굴을 위한 ‘희곡우체통’과 연출가의 실험을 위한 ‘연출의 판’과 더불어 우리 연극의 맥을 잇는 사업으로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을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기존 우수작을 모아 선보이는 레퍼토리 시리즈로 2018년을 시작했고, 전대의 우수 사업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을 지속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고선웅 각색·연출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다시 한번 많은 관객들을 울렸고, 이어서 배삼식 작의 <3월의 눈>과 재미 작가 줄리아 조의 <가지>가 미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후폭풍으로 어지럽던 2018년 봄, 연극인과 시민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시리즈로는 새로 구성한 자문위원회가 추천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두 작품, 윤백남 작 <운명>과 송영 작 <호신술>을 각각 김낙형 연출과 윤한솔 연출이 동시대적 해석을 보태어 무대에 올렸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제작공연은 연극계에서 한창 활동 중인 작가와 연출가를 초대하여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고민하는 작품들로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 작품인 카프카의 <성>과 카뮈의 <페스트>를 무대화하여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경 각색, 구태환 연출의 <성>은 원작에 충실한 해석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낯설고 부당한 현실을 동시대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고, 박근형 각색·연출의 <페스트>는 작품 배경을 분단 상황으로 설정해 최근 한국 사회를 휩쓸고 간 고통과 절망을 ‘페스트’에 빗대어 풀어냈습니다.

‘젊은극작가전’으로는 지난해 작품 개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임빛나 작가의 <얼굴도둑>을 제작공연으로 선보였습니다. 왜곡된 모성애와 강압적인 교육관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딸의 이야기에 특히 젊은 관객들이 공감을 보냈습니다. ‘젊은연출가전’으로 부새롬 연출이 선보인 <2센치 낮은 계단>은 배우들과의 공동창작으로 구성하여,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상실과 절망으로 복수를 꿈꾸는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을 무대에 담았습니다. 초청 공연으로는 김수희 작·연출의 <말뚝의 눈물>과 고연옥 작, 김정 연출의 <손님들>을 통해 갑작스러운 조선업의 쇠락으로 큰 갈등을 겪었던 거제도 조선소 노동 현장의 생생한 기억과, 독재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를 존속 살해를 둘러싼 초현실적인 판타지로 각각 소개하였고, <리차드 3세>를 재기 넘치는 광대극으로 풀어낸 프랑스 연출가 장 랑베르-빌드의 독창적인 무대를 해외초청 공연으로 소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 신작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과정에서 노력한 배후 인물들의 실화를 담은 <오슬로>를 공연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불화를 넘어 평화를 약속하는 일의 지난함, 그리고 평화 협상 과정에 연루된 수많은 정치인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갈등을 담은 이 작품은 작년 한반도 정세와 맞물리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정치적 울림을 주었습니다. 11월에는 지역 극장과의 협업 프로젝트로 안산문화재단의 희곡 공모 당선작인 윤미현 작가의 <텍사스 고모>를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의 공동제작으로 선보이며 날로 늘어가는 다문화 가정의 비극적 현실을 공유했습니다. 연말에는 영국의 대표 극작가인 톰 스토파드의 <룩앤롤>을 김재엽 연출의 해석을 담아 소개하여, 이데올로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세기 중후반 “저마다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룩앤롤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 제기를 담아내는 연극을 제작하고 다양한 연구 사업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창작 신작 <사물함>과 댄스시어터 <죽고 싶지 않아>의 재공연을 선보였고, 영국 버밍엄레퍼토리시어터와 함께 4년에 걸쳐 공동 제작한 <오렌지 북극곰>을 서울과 버밍엄에서 공연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립극단은 2018년 한 해 동안 총 18편의 공연으로 서울을 비롯한 국내외 9개 도시에서 8만 명이 넘는 관객을 만났고 동아연극상 연출상(<운명>, 김낙형)·희곡상(<텍사스 고모>, 윤미현)·연기상(시즌단원 이수미)을 비롯해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오슬로>),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8 공연 베스트 7(<오슬로>) 등의 영예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희곡우체통’, ‘연출의 판’, ‘연극동네 연희마당’,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등의 작품 개발 및 연구 사업을 통해 20편이 넘는 신작을 낭독회와 쇼케이스로 선보였습니다. 공연 제작과 작품 개발을 위해 땀 흘린 많은 연극인들과 국립극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쁘게 달렸던 국립극단 2018년 그 한 해의 기록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정리 국립극단 작품개발실

2018 SEASON PERFORMANCES

2018 기획공연

(레퍼토리) 3월의 눈 / (레퍼토리) 가지 / (레퍼토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9) 운명 /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10) 호신술 / 성 / 페스트 / 록엔롤 / (젊은연출가전) 2센치 낮은 계단 /
(젊은극작가전) 얼굴도둑 / 오슬로 / (공동제작) 텍사스 고모 / (기획초청) 말뚝의 눈물 / (기획초청) 손님들 /
(해외초청) 리차드 3세 / (기획대관) 심청가 / (기획대관) 흥보씨



©나승열(오현경, 손숙)



작 배삼식 연출 손진책
Written by Pai Sam-sik
Directed by Sohn Jin-chaek

매 공연 관객의 눈가를 붉게 물들이며 전석 매진을 기록한 국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3월의 눈>이 명동예술극장으로 터를 옮기고 오현경-손숙, 오영수-정영숙 캐스팅으로 3년 만에 선보였다. 재개발 열풍으로 한평생 일구어 놓은 집 한 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노부부 장오와 이순. 정작 그들은 담담히 문종이를 새로 바르고 뜨개질을 하며 일상을 지내지만, 이들을 제외한 주변은 시끌벅적하기만 하다. 급변하는 이 시대, 사라져 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묵묵히 담아낸 이 작품은 자극적인 내용도, 극적인 반전도 없지만 잔잔한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끝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순리가 팍팍한 우리 삶을 위로하는 것은 아직 유효하며, 원로 배우들의 존재감이 감동을 선사하는 것 또한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

One of the National Theater Company's most acclaimed repertoires, *Snow in March* by Pai Sam-sik returned to the Myeongdong Theater stage. This highly anticipated revival was the fifth production since its legendary premiere in 2011. The record-breaking sellout repertory featured four legendary actors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providing unforgettable theatrical moments full of both tears and smiles.

A. 극단이 좋은 레퍼토리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신작 개발과 함께 매년 혹은 격년으로 공연하는 레퍼토리가 있다는 것은 극단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의미다. <3월의 눈>은 공연의 레퍼토리화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인간을 다루는 연극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는 시대와 관계없이 영원히 다뤄질 것이기에, <3월의 눈>은 동시대를 넘어 의의를 이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 배우의 조로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 연극 지형에서 노배우가 연극 전체를 이끄는 <3월의 눈>은 소중하다. 배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출가와의 만남을 통해 번주가 있기를 바란다.

B. 국립극단의 역할 중 하나는 연극을 통한 세대 갈등 완화일 것이다. 이러한 선상에서, 문학성이 뛰어나고 드라마적 구조를 따르지 않는 <3월의 눈>은 젊은 관객층이 보아야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간과 공간 사용 방식이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된 세트가 진부한 느낌을 주는 점이 아쉬웠다. 공간뿐만 아니라 세대별 관객층에 따라 작품을 갱신하는 방식이 작품의 생명력, 예술성 유지를 위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공연협평회 회의록 중



©슬로워크 PHOTO 니승열

3월의 눈
Snow in March
2018.2.7 — 3.11
명동예술극장
28회, 80분

스태프
작 배삼식
연출 손진책
무대 박동우
조명 김창기
의상 최보경, 김지연
음악 김철환
분장 백지영
조연출 최봉문
조연출보 최성호

출연
장오 오현경, 오영수
이순 손숙, 정영숙
윤철 하성광
명서 김정은
상구 유병훈
황씨 이종무
통장 박지아
중국인 관광객·인부
이수미, 이원희,
이호철
일본인 관광객·인부
김한, 김수아
한국인 관광객·인부
양서빈, 조남용

STAFF
Written by
Pai Sam-sik
Director
Sohn Jin-chaek
Set
Park Dong-woo
Lighting
Kim Chang-key
Costume
Choi Bo-kyung,
Kim Ji-yeon
Music
Kim Chul-hwan
Make-up
Baek Ji-young
Assistant director
Choi Bong-moon
2nd assistant
director
Choi Sung-ho

CAST
Jang-oh
Oh Hyun-kyung,
Oh Young-soo
Yi-soon
Son Suk,
Jung Young-sook
Yong-cheol
Ha Sung-kwang
Myeong-seo
Kim Jung-eun
Sang-gu
Yoo Byung-hoon
Mr. Hwang
Lee Jong-moo

Representative of
village
Park Ji-a
Chinese traveler/
Laborer
Lee Soo-mi,
Lee Won-hee,
Lee Ho-cheol
Japanese traveler/
Laborer
Kim Han,
Kim Su-ah
Korean traveler/
Laborer
Yang Savine,
Cho Nam-yung

©니승열(오영수, 정영숙)





작 줄리아 조 번역 박춘근
연출 정승현
Written by Julia Cho
Translated by Park Choon-
keun
Directed by Jeong Seung-
hyun



2017년 ‘한민족디아스포라전’의 일환으로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초연된 <가지>는 관객과 평단 모두의 호평을 받으며 동아연극상 작품상 등을 수상하였다. 2018년, 재공연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다시 한번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관객을 만난 뒤 7월에는 안성맞춤아트홀에서의 공연을 통해 지역 관객에게도 소개되었다. 작가는 재미교포 2세 요리사인 레이와 그 주변인들이 소통의 부재로 멀어진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겪는 마지막 순간을 섬세하면서도 담담하게 그려 냈다. 죽음과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공감을 자아내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The poignant theater piece *Aubergine* again deeply touched many audience's hearts two seasons after it was first staged. Coming face to face with his estranged father now lying on his deathbed, the only son, Ray tries to make one last perfect meal for this man who had been so strict with him all his life. With subtle compassion and affection, Ray's ex-girlfriend stands by him and helps him as he tries to come to terms with his dying father. As one reviewer wrote "Everything was just perfect," the stage needed nothing more, nothing less; it was full of mesmerizing moments that everyone in the audience went away with tucked in their hearts and ready to be taken out and relived again and again.

A. <가지>의 가장 큰 매력은 소소하고 담담한 서사이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재미와 감동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극작가를 소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생각된다. 일상적인 소재와 드라마를 택함에도 필연적으로 묻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 민족, 정체성 등의 키워드를 관객에게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디아스포라’를 앞세운 기획의 힘일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현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키워드로서 다분히 동시대적이며, 이민 후세대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다룰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17년에 진행된 ‘한민족디아스포라전’ 시리즈가 영어권 작가들에만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아시아 지역의 디아스포라 혹은 한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후속 리서치와 공연 제작이 이어진다면 더욱 균형감 있는 시리즈가 되리라 기대된다.



©김가든 PHOTO 이승열

B. <가지>의 결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한 연출의 노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언어 표현이다.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그 두 언어 사이 다양한 층위의 언어가 적절하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서툰 한국어 표현이 인상 깊었다. 이 작품이 갖는 여러 미덕 중 또 하나는 제삼자의 시선으로 내부를 보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가지>를 통해 우리는 이방인, 즉 이민자의 시선으로 한국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우리의 시선 밖을 보게 된다. 이는 모든 경계인의 이야기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지
Aubergine
2018.2.21 — 3.18
백성희장민호극장
23회, 135분
(인터미션 15분)

스태프
작 줄리아 조
연출 정승현
번역 박춘근
무대 김수희
조명 이현승
의상 이윤정
소품 백혜린
분장 장경숙
음악 김정용
음향 정윤석
무대감독 나혜민
조연출 문새미

출연
아버지 김재건
레이 김중태
삼촌(낯선 남자) 김정호
코넬리아 우정원
루시앙 신안진
다이앤 김광덕
병원 직원·목소리 이현주

STAFF
Written by Julia Cho
Director Jeong Seung-hyun
Translator Park Choon-keun
Set Kim Soo-hee
Lighting Lee Hyun-seung
Costume Lee Yun-jung
Prop Baek Hye-rin
Make-up Jang Kyoung-suk
Music Kim Jeong-yong
Sound Chung Yoon-suk
Stage manager Na Hye-min
Assistant director Moon Sae-mi

CAST
Ray's father Kim Jae-kun
Ray Kim Jong-tae
Uncle (Stranger) Kim Jeong-ho
Cornelia Woo Jeong-won
Lucien Shin An-jin
Diane Kim Gwang-deok

Hospital worker/
Voice Lee Hyun-ju

공연협정회 회의록 중

©김도판(김종태, 우정원, 김정호)





원작 기군상
번역·드라마투르기 오수경
각색·연출 고선웅
Based on the play by Ji
Junxiang
Translation & dramaturgy by
Oh Soo-kyung
Adapted & directed by Koh
Sun-woong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13세기 중국 작가 기군상이 쓴 희곡(잡극)을 고선웅이 새롭게 각색·연출하여 동아연극상과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 등을 수상한, 명실공히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원작 특유의 장쾌한 서사에 희비극을 자유롭게 오가는 배우의 완벽한 연기, 그리고 연극의 원형성을 찾아 한바탕 놀이의 장을 만들어 낸 연출이 어우러져 국립극단의 레퍼토리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초연 이후 4년째를 맞은 2018년 재공연에서는 모든 등장인물의 당위성을 보다 면밀히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리하여 관객들이 ‘복수’에 대해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양한 관점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The Orphan of Zhao: Root of Revenge was adapted and directed by Koh Sun-woong and presented as a new version of *The Orphan of Zhao*, the Chinese play attributed to the 13th century dramatist Ji Junxiang. Undoubtedly one of the most successful productions to come out of the Korean theater scene in recent years, it swept a number of major drama awards including Best Production at the 52nd Dong-A Theater Awards (2015) and Best Production at the 8th Korea Theater Awards (2015). The gripping plot of the original play was complemented by the cast's flawless performance switching back and forth between comedy and tragedy. In 2018, the production returned to the Korean stage for the fourth season. This time, greater emphasis was given to thoroughly expressing each character's justifiability, thereby offering the audience a chance to more fully consider a variety of perspectives rather than just searching for the one right answer with regards to the true meaning of revenge.

A. 서구의 고전 희곡과 견주어도 상징성과 구조, 다양한 인간상 구현을 통한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 전달 등의 면에서 손색이 없는 동양의 고전 희곡을 발견하여 공연을 제작하고 이를 레퍼토리화한 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도전이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는 이 선택의 타당함을 입증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소 구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작품에 관객들이 몰입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한 데는 각색과 더불어 배우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고전 희곡의 한계 중 하나인 전형적인 인물상, 다시 말해 디테일이 제거되고 목표가 지나치게 뚜렷한 인물이 배태량 연기자들의 몸과 목소리를 거치면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생명력 있는, 충분히 공감 가능한 인물로 재창조되었다. 커다란 무대와 이야기를 홀로 이끌어 가면서도 결코 힘주는 법 없이 성실하고 진중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정영 역을 소화해 낸 하성광 배우뿐

아니라 조씨고아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결코 크지 않은 비중의 인물들의 캐릭터가 보편성 있고도 생생해 인상에 남는다.

B. 이번 재공연에서는 초연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흔들림을 겪었다. 아마도 배우들의 숙련된 연기와 앙상블 덕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초연 때는 미리 간파되었던 장면들이 더 세심하게 설계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C. 아쉬운 점을 들자면, 특유의 대사법과 형식화된 동작을 활용하는 고선웅 연출만의 연극적 기법이 반복되면서 피로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 빠르고 걱정적인 대사 구현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객석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그 PHOTO 표기식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The Orphan of Zhao:
Root of Revenge
2018.9.4 — 10.1
명동예술극장
24회, 150분
(인터미션 15분)

2018.10.13
강원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
2018.10.19 — 20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2018.10.26 — 27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스태프
원작 기군상(紀君祥)
번역·드라마투르기
오수경
각색·연출 고선웅
무대 이태섭
조명 류백희
의상 이윤정, 최인숙
음악 김태규
분장 이동민
소품 김혜지
조연출 서정완,
노현동

출연
정영 하성광

도안고 장두이
공손저구 정진각
영공 이영석
조순 유순웅
제미명 외 조연호
정영의 아내 이지현
도안고의 부사 외
성노진
서예 외 장재호
한길 호산
영첩 강득중
신오 외 김명기
조삭 김도완
목자 전유경
공주 우정원, 정새별
조씨고아 외 이형훈

STAFF
Based on
Ji Junxiang
Translator/
Dramaturg
Oh Soo-kyung
Adapted &
directed by
Koh Sun-woong
Set
Lee Tae-sup
Lighting
Ryou Back-hee
Costume
Lee Yun-jung,
Choi In-sook
Music
Kim Tae-kyu

Make-up
Lee Dong-min
Prop
Kim Hye-ji
Assistant director
Seo Jeong-wan,
Noh Hyeon-dong

CAST
Cheng Ying
Ha Sung-kwang
General Tu'an Gu
Chang Due-yee
Gongsun Chujiu
Chung Jin-gak
Duke Ling
Lee Young-seok
Zhao Dun
Yu Soon-uoong
Di Miming et al.
Cho Youn-ho
Cheng Ying's wife
Lee Jihyun
Tu'an Gu's servant
et al.
Sung No-jin
Chu Ni et al.
Jang Jae-ho
General Han Jue
Ho San
Ling Zhe
Kang Deuk-jong
Demon Mastiff et
al.
Kim Myung-ki

Zhao Shuo
Kim Do-wan
Blind woman
Chun Yoo-kyung
Princess
Woo Jeong-won,
Jung Sae-byul
The Orphan of Zhao
et al.
Lee Hyoung-hun

공연협업회 회의록 중

©나승렬(이형훈, 전유경, 유순웅, 강득중)





©SUPA GROUND(양서민)



작 윤백남 연출 김낙형
Written by Yun Baek-nam
Directed by Kim Nak-hyoung

우리 연극사의 의미 있는 희곡들을 발굴해 온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9번째 작품은 신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윤백남의 <운명>이다. 1920년대 하와이를 배경으로 조선 이민자들의 삶을 경쾌하게, 때로는 가슴 아프게 담아낸 이 연극은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해외 이주민의 현실과 여성 문제 등을 동시대적 맥락에서 고찰할 기회가 되었다. 그동안 대담한 해체와 재구성 등을 시도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주목받아 온 연출가 김낙형은 이 작품으로 ‘단선적 구도로 이루어진 장면을 세밀하게 분할해 입체적인 리듬감을 더했다’는 평을 받으며 제55회 동아연극상 연출상을 수상하였다.

Fate by Yun Baek-nam was the ninth play in the series, Rediscoveries of Korean Modern Drama, designed to introduce monumental works in the history of Korean theater. This work had previously opened up a new chapter in Korea modern drama and quickly garnered much popularity. Set in the 1920s, the play presents a portrait of Korean immigrants in Hawaii, sometimes full of cheer and sometimes tinged with sorrow. Not only was the audience led to revisit some key moments in Korean history, but was also given a chance to examine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and continued relevance of the play, particularly in its exploration of the reality faced by overseas immigrants and issues related to women. Noted for his bold style of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and fresh perspectives, Director Kim Nak-hyoung was praised for “creating a new rhythm by dividing up the linear scenes in minute detail.” He won Best Director at the 55th Dong-A Theater Awards for this production.

©SUPA GROUND(이수미, 주인영)

A. 이 공연은 동시대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작 희곡에는 스쳐 지나가듯 나오는 여인들을 부각하여 하와이 이주민의 삶을 보여 주려 했고, 다큐 영상과 농장에서의 노동 장면을 몹신(mob scene)으로 구성해 무대 공간을 연출했다. 이러한 선택은 연극의 배경인 1920년대와 관객이 사는 현재의 시간적 간극을 좁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과거의 말투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현대의 어법을 적절히 섞어 활용함으로써 과거의 분위기는 그대로 살리되 현대 관객이 듣기에도 이물감이 없는 언어를 탄생시켰다.

B. 이 희곡은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당시 희곡의 면모를 보여 주며, 사진 결혼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상을 소재로 다룬다. 전반적으로 멜로드라마의 분위기가 짙으므로 연출 시 이를 극복할 만한 해석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했다고 본다. 연출의 재해석에

드라마투르기적 투자가 강하게 요구되는 작품이다.

C. 손호성의 무대와 소품 등이 탁월했다. 그 무대 톤처럼 의상, 연기도 형해(形骸)화되고 부식(腐蝕)되게 나왔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이수미, 주인공의 연기는 작품을 뛰어넘었다. 홍아론은 좀 더 세심하고 양서빈은 더욱 걱정적이었다면 좋았겠다. 연출의 단단함이 시간 여행을 넘어 정격 연극으로 관객을 안내했다. 텍스트의 길이가 짧으니 배우(인물)의 침묵, 응시 등을 활용하면서 내면(감성)의 폭발과 울림(진동)을 일으켰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55회 동아연극상 연출상(김낙형)
제55회 동아연극상 연기상(이수미)



©써니아일랜드

운명
Fate
2018.9.7 — 29
백성희장민호극장
20회, 80분

스태프
작 윤백남
연출 김낙형
무대 손호성
조명 주성근
의상 이명아
음악 김동욱
영상 신성환
안무 금배섭
분장 김근영
소품 박현이
음향 유옥선
안무트레이너
배민우
조연출 최봉문

출연
박메리 양서빈
이수옥 홍아론
양길삼 이종무
장한구 박경주
인근 여인 갑 이수미
인근 여인 을 주인공
송애라 박가령

STAFF
Written by
Yun Baek-nam

Director
Kim Nak-hyoung
Set
Son Ho-seong
Lighting
Joo Seong-geun
Costume
Lee Myoung-ah
Music
Kim Dong-wook
Video
Shin Johannes
Choreographer
Keum Bae-sub
Make-up
Kim Geun-young
Prop
Park Hyeon-i
Sound
Ryu Ok-seon
Dance trainer
Bae Min-woo
Assistant director
Choi Bong-moon

CAST
Park Mary
Yang Savine
Lee Su-ok
Hong Aaron
Yang Gil-sam
Lee Jong-moo
Jang Han-gu
Park Kyung-zoo
Woman A
Lee Soo-mi

Woman B
Joo In-young
Song Ae-ra
Park Ga-ryeong

공연협평회 회의록 중

©SUPAGROUND(홍아론, 양서빈)





©이강물(김은석)



작 송영 연출 윤한솔
Written by Song Yeong
Directed by Yoon Han-sol

근현대극 자문위원을 통해 국립극단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시리즈의 10번째로 선정된 작품은 노동 문학의 대표 작가인 송영의 <호신술>이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노동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지켜본 작가가 그들의 아픔을 통쾌한 풍자로 그려 냈고, 여기에 윤한솔 연출의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져 보다 역동적인 작품이 탄생했다. 여러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룡이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폭력 사태에 대비하고자 온 가족과 함께 호신술 수업을 받는 모습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이 작품은 무대를 뒤흔드는 화려한 와이어 무술, 강렬한 조명과 음향 등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 노동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했다는 평을 받았다.

The Art of Self-Defense was the 10th play of the series Rediscoveries of Korean Modern Drama. It was selected for the 2018 season, along with Yun Baek-nam's *Fate*, by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ater academics and critics. The playwright Song Yeong, bor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a representative writer of labor literature in the 1930's. He witnessed workers' struggles at the beginning of capitalism in this country, and thus was able to poignantly describe workers' agony with a good mix of satire. The director Yoon Han-sol's creative interpretation using martial arts with wires and harnesses as well as dramatic lighting and sound effects gave a dynamical rebirth of this hidden gem of modern Korean drama.

©이강물(박가령, 김은석, 이원희,
박경주, 김청순)

A. 냉소적이지만 기본적으로 희극의 요소가 가득한 희곡과 윤한솔 연출의 결합은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다. 윤한솔은 이 작업에서 언어와 움직임의 어휘를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와이어와 의상이 빚어내는 희극적 상황들도 희곡과 매우 잘 어울렸다. 짧은 단막극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가진 자들에 대한 풍자와 익살은 주목할 만하다. 옛 말투가 지닌 특별한 재미를 발견하는 것 또한 하나의 즐거움이였다. 노동자들의 파업 상황이 전개되는 마지막 장면은 미래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이처럼 근대 초기의 희곡을 발굴하여 공연하는 이 시리즈는 우리 연극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당시의 연극이나 생활상 또한 알 수 있게 해 준다. 근대극이 지닌 장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연출한다면 옛 희곡도 현대적인 감각의 새로운 옷을 입고 관객 앞에 선보일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공연이였다.



©씨니아일랜드

B. 송영이 카프 계열의 작가라는 점에서 기대 요소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는 했지만 계급 구조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자본가 계급에 대한 비판, 냉소는 놀라울 만큼 대담했다. 철저한 계급 구조라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희곡이 현재에도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호신술>은 현시대와의 연결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희곡이라고 생각한다.

호신술
The Art of Self-Defense
2018. 12.5 — 24
백성희장민호극장
18회, 75분

스태프
작 송영
연출 윤한솔
무대·소품 신승렬
조명 김형연
의상 김경희
무술 이국호
분장 이동민
음악 움브레
무대·소품보 김혜림
조연출 박현지, 최용혁
무대감독 김장호

출연
서춘보 이영석
김정수 김은석
홍경원 최지연
만담꾼·젊은 하인 A 유성진
김상룡 신재환
윤상천 이원희
박정훈 박경주
혜숙 박가령
만담꾼·젊은 하인 C 박하늘

이우인 김청순
만담꾼·젊은 하인 B 최지현

STAFF
Written by Song Yeong
Director Yoon Han-sol
Set/Prop Shin Seung-ryul
Lighting Kim Hyoung-yeon
Costume Kim Kyong-hee
Martial arts Lee Kuk-ho
Make-up Lee Dong-min
Music Ohmbre
Set & prop assistant Kim Hye-rim
Assistant director Park Hyeon-ji,
Choi Yong-hyeock
Stage manager Kim Jang-ho

CAST
Seo Chun-bo
Lee Young-seok
Kim Jung-su
Kim Eun-seok

Hong Gyeong-won
Choi Ji-youn
Storyteller/Young servant A
Yu Seong-jin
Kim Sang-ryong
Shin Jae-hwan
Yoon Sang-cheon
Lee Won-hee
Park Jung-hun
Park Kyung-zoo
Hye-sook
Park Ga-ryeong
Storyteller/Young servant C
Park Ha-neul
Lee Woo-in
Kim Cheong-soon
Storyteller/Young servant B
Choi Ji-hyun

공연협평회 회의록 중



©이강물(신재환, 이원희)



©나승열(원작: 카프카, 홍아론, 박윤희)

작 프란츠 카프카
각색 이미경 연출 구태환
Written by Franz Kafka
Adapted by Lee Mee-kyung
Directed by Koo Tae-hwan

세계고전 시리즈의 일환으로 실존주의 문학의 대가로 불리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성>을 무대화하였다. 카프카가 남긴 작품 중 가장 매혹적인 소설로 꼽히는 이 작품은 부름을 받아 ‘성’에 가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주인공 K의 모습을 통해 소외와 불안 속에서 투쟁하는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을 그렸다. 이미경 작가의 각색으로 카프카의 원작이 위트와 리듬감 있는 희곡으로 재탄생했고, 연출가 구태환의 감각적인 무대 연출은 원작의 난해함을 보다 친절하게 풀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Franz Kafka's *The Castle* was brought to the stage of NTC Korea as a succinct summary with a good sense of humor by Lee Mee-kyung who adapted the haunting story complete with a mysterious and foreboding castle that forbade people from entering. Arriving in this bizarre and twisted place where everything was at best uncertain, K, an outsider endeavored to navigate through the nightmarish maze to reach the castle; but did he ever actually get there? Koo Tae-hwan's dynamic staging was received as a kind interpretation as he tried to decode the perplexing work for contemporary audiences.

©나승열(박윤희, 정세별)

성

The Castle







©나승열(박경주, 조판수)



©새니아일랜드

성
The Castle
2018. 3. 23 — 4. 15
명동예술극장
21회, 150분
(인터미션 15분)

스태프
작 프란츠 카프카
각색 이미경
연출·조명 구태환
무대 박동우
의상 오수현
음악 김태근
움직임 남궁호
분장 임영희
소품 송미영
조명디자인 협력
장서정
조연출 박종호
조연출보 이동규

출연
K 박윤희
가르데나 외 박현미
게어슈테커 외
김정환
한스, 에어랑어 외
최지훈
촌장, 털보 외 김희창
예레미아스 외
조판수
올가 외 장지아
교사 외 김성철

아르투르 외 박경주
프리다 외 정새별
바르나바스 외
홍아론
슈바르처, 뷔르겔 외
임준식
아말리아 외 강해진
페피 외 박가령
농부 외 권형준
농부 외 조성국
농부 외 이동규
금발 여인 외 고정선
여주인 외 강주희

STAFF
Written by
Franz Kafka
Adapted by
Lee Mee-kyung
Director/Lighting
KooTae-hwan
Set
Park Dong-woo
Costume
Oh Su-hyun
Music
Kim Tae-geun
Movement
Nam Geung-ho
Make-up
Yim Young-hee
Prop
Song Mi-young

Lighting
association
Jang Seo-jung
Assistant director
Park Jong-ho
2nd Assistant
director
Lee Dong-kyu

CAST
K
Park Yun-hee
Gardena et al.
Park Hyun-mee
Gerstacker et al.
Kim Jung-hwan
Hans, Erlanger et al.
Choi Ji-hoon
Mayor, Hairy person et al.
Kim Hee-chang
Jeremiah et al.
Jo Pan-su
Olga et al.
Zhang Zia
Teacher et al.
Kim Seong-cheol
Arthur et al.
Park Kyung-zoo
Frida et al.
Jung Sae-byul
Barnabas et al.
Hong Aaron

Schwarzer, Buergerl et al.
Im Jun-sik
Amalia et al.
Kang Hae-jin
Pepi et al.
Park Ga-ryeong
Peasant, Student, Servant et al.
Kwon Hyoung-jun
Peasant, Student, Servant et al.
Jo Seong-guk
Peasant, Servant et al.
Lee Dong-kyu
Blonde woman et al.
Ko Jeong-seon
Manor innkeeper et al.
Kang Ju-hee

공연협력회 회의록 중

A. ‘견고한 성 같은 관료제와 그 앞의 개인’이라는 원작의 주제가 충분히 전달되었다. 이는 원작을 충실히 재연하고자 한 연출 의도와 K의 모범 답안 같은 정식 연기가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농부와 조수 같은 양식화된 인물들 역시 젊은 배우들의 개성 있는 연기가 생동감을 부여했다. 마을이라는 장소를 문이라는 단순한 소재를 사용해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점도 높이 사고 싶다. 다만 동시대적이지 않은 여성 인물의 구축과 묘사는 젠더 감수성적 관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고전 작품을 무대화하는 작업은 어떤 시대든 의미를 갖는다. 국립극단의 작품 제작이 난해한 고전에 대한 관객의 학습과 시야 확장이라는 측면을 갖는다면 그 자체로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한국 연극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도전적이고 동시대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B. 원작이 이해가 쉽지 않은 작품인 만큼 이미지 형성이 중요한데, 기괴한 마을의 이미지와 끝없이 쌓이는 눈이 야기한 시간의 모호성이 좋은 효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연출적 완성도가 높은 구태환과 카프카의 만남이 적절했고, 박동우의 무대미술 또한 조화로웠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모여 부조리한 희곡의 양식성을 적절히 살려 냈다. 만약 관객이 작품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길 바란다면, 원작에 대한 충분한 설명 혹은 논평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C. 각색과 연출, 혹은 무대 미술가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무대를 구현했다고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카프카의 작품은 명동예술극장보다는 백성희장민호극장이나 소극장 판을 무대로 하여 대중성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긴 호흡으로 서너 시간에 걸쳐 공연을 하는 과감한 기획으로 연극 매니아층을 겨냥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나승열(이동규, 박경주, 권형준, 박윤희, 조판수, 김성철, 조성국)



©나승열(임준식, 김수아)

원작 알베르 카뮈
각색·연출 박근형
Based on the novel by Albert
Camus
Adapted & directed by Park
Geun-hyung

페스트

La Peste (The Plague)



노벨상 수상 작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는 알제리의 도시 오랑(Oran)에 급작스럽게 닥친 전염병 페스트의 확산과 이를 이겨 낸 시민들의 이야기이다. 연극 <페스트>는 절망과 싸우는 소시민들의 끊임없는 연대를 무대화하며 동시대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였다. 원작의 격리된 도시 오랑을 바다의 외딴섬으로 설정하고, 섬 내부가 거대한 장벽을 사이에 두고 분단된 상황으로 배경을 변주했다. 이로써 원작이 지닌 페스트의 의미를 확장하여 동시대 우리 사회의 갈등과 위기로 재해석했다는 평을 받았다.

Written by Nobel literature laureate Albert Camus, *The Plague* was reborn under the direction of Park Geun-hyung who put his unique stamp on the production. Transforming the stage into an island made the reality of isolation all the more dramatic. The way Park interpreted the play in a playful manner enabled what appeared to be heavy in the original novel to become lighter, but no less vivid. On an island plagued with illness and disease, the constant isolation and repetition of death was suffocating, forci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to show their true colors while fighting tooth and nail against the plague. Captured in the hellish moment of being infected, the scenes on stage relentlessly forced the audience to consider the question of “fight or flight.”





©나승열(임준식, 장지아, 이호열 외)



©써니아일랜드

페스트
La Peste (The
Plague)
2018. 5. 18 — 6. 10
명동예술극장
21회, 110분

스태프
원작 알베르 카뮈
각색·연출 박근형
무대 박상봉
조명 김창기
의상 오수현
음악 박민수
소품·분장 장경숙
조연출 이은준, 황민형

출연
베르나르 리유
이찬우
지사 강지은
젊은 베르나르 리유
임준식
리유의 아내 외
김수아
조제프 그랑 김한
장 타루 이원희
레몽 랑베르 박형준
코타르 김은우
리샤르 외 장지아
카스텔 외 이호열
수위 파들루 신부
조영규
수위의 아내 외 박시영
오통 판사 외 김혁민

오통 판사의 아내 외
박소연
장교 외 조남웅
장교 외 심상운
리유의 간호사
심재현
신문 판매원 외
안소영
군인 외 홍수민

STAFF
Based on
Albert Camus
Adapted &
directed by
Park Geun-hyung
Set
Park Sang-bong
Lighting
Kim Chang-key
Costume
Oh Su-hyun
Music
Park Min-soo
Prop/Make-up
Jang Kyung-suk
Assistant director
Lee Eun-jun,
Hwang Min-
hyung

CAST
Bernard Rieux
Lee Chan-woo
Governor
Kang Ji-eun

Young Bernard
Rieux
Im Jun-sik
Rieux's Wife et al.
Kim Su-ah
Joseph Grand
Kim Han
Jean Tarrou
Lee Won-hee
Raymond Rambert
Park Hyung-jun
Cottard
Kim Eun-woo
Dr. Richard et al.
Zhang Zia
Dr. Castel et al.
Lee Ho-yeal
Janitor/Father
Paneloux
Cho Young-kyou
Janitor's Wife et al.
Park Si-young
Magistrate Othon
et al.
Kim Hyeok-min
Mrs. Othon et al.
Park So-yeon
Officer et al.
Cho Nam-yung
Officer et al.
Shim Sang-yun
Rieux's Nurse
Shim Jae-hyun
News vendor et al.
An So-young
Soldier et al.
Hong Soo-min

공연협력회 회의록 중

A. 카뮈의 ‘페스트’는 인간 사회가 겪을 수 있는 역병뿐만 아니라 전쟁, 기아, 과식증 등 다양한 함의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박근형 연출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를 휩쓴 고통과 절망, 변화와 희망을 <페스트>라는 텍스트를 통해 투사하고자 했다. 비교적 분명한 해석과 힘찬 각색, 그리고 효율적인 연출로 두 시간 동안 박근형은 자기만의 극세계를 분명하게 형상화한다. 그의 대표작들에서 발견되는 특유의 모호한 인간관계와 능청스러운 유머 대신 힘차게 전진하는 행동들과 분명한 인간관계, 고조되는 긴장감을 매우 논리적으로 구축한 작품이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원작의 전달과 주제적 재해석의 면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연출만의 색이 보다 살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원작에 없는 남북 분단 상황을 전면에 강조함으로써 원작의 사유가 지닌 깊이와 넓이를 정치적 담론으로 좁힌 것은 양날의 검이었다고 생각한다.

B. 박근형 연출은 원작의 주제와 형식을 오늘날 한국의 실정으로 옮겨 왔다. 유럽의 거대한 전쟁은 한국전쟁으로,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도 수평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이룩할 수 있다는 원작의 메시지는 한국 민중들의 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저항과 열망으로 환치되어 다가온다.



©나승열(김한, 박소연, 강지은 외)



©나승열(김재업 연출)



작 톰 스토포드
번역 손원정 연출 김재업
Written by Tom Stoppard
Translated by Son Won-jung
Directed by Kim Jae-yeop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극작가 톰 스토포드의 <록앤롤>은 그의 출신지인 체코와 영국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다. 1968년 프라하의 봄부터 1989년 벨벳혁명까지 긴 시간 동안 한 개인이 겪는 삶과 경험을 통해 우리의 지난 역사와 현재를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으로, ‘롤링 스톤스’와 ‘밥 딜런’ 등 시대를 풍미했던 록 밴드와 체코 국민 뮤지션 ‘플라스틱 피플 오브 유니버스’의 음악을 통해 사랑과 사상, 자유, 혁명 등 다양한 주제를 하나의 멋진 하모니로 만들어 낸다. 2006년 런던 초연 당시 많은 관객과 평론가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영국 이브닝스탠더드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이후 뉴욕과 체코, 일본 등지에서 여러 프로덕션으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소개되었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명동예술극장에서 김재업의 연출로 공연되었다.

In *Rock 'n' Roll*, Tom Stoppard, one of the most celebrated playwrights of our time, takes us to England and the Czech Republic, the two places of his origin. The play recounts the life and experiences of one individual between the Prague Spring of 1968 and the Velvet Revolution of 1989, which, in turn, makes the audience reflect on the past and present. The music of the Rolling Stones and Bob Dylan as well as the famous Czech rock band Plastic People of the Universe, is brought together to create a wonderful harmony of such diverse themes as love, ideology, freedom and revolution. The play premiered in London in 2006 and was staged in New York and Prague. It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audience for the first time in 2018 at Myeongdong Theater under the direction of Kim Jae-ye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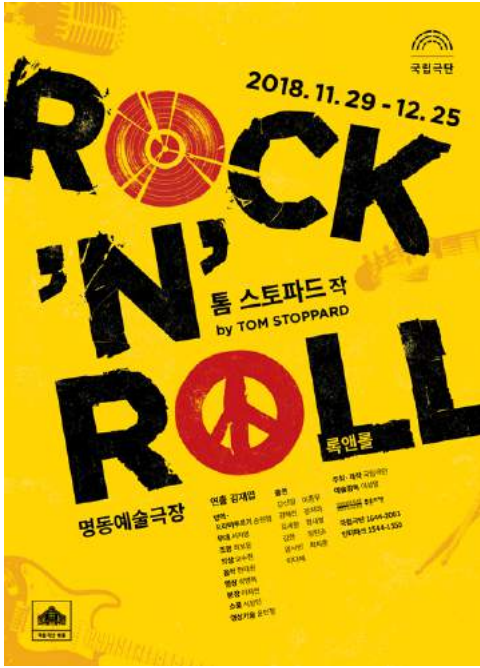


©나승열(양서빈, 장지아, 강신일)

공연합평회 회의록 중

A. 치밀한 구성력이 돋보였다. 20세기 후반 서구의 냉전 상황,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공산주의의 붕괴 등에 대한 묘사가 대사를 통해서 탁월하게 표현되었다. 작가는 치열한 이데올로기 토론을 끌어 나가면서 수시로 그 대척점에 로큰롤의 이야기를 펼쳐 놓았다. 공연 시간이 약 200분으로 무척 길었지만 그렇게 길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의 토론들이 수시로 벌어졌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게 대화에 몰입이 되었다. 회전 무대를 이용하여 여러 장면을 물 흐르듯이 연결시킨 것도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로큰롤 음악과 배우들의 움직임, 영상 등이 어우러지며 무대 전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휴식하는 느낌이 들었다.

B. 국내의 사회적, 정서적 변화를 반영하려는 국립극단의 의지와 평소 다큐멘터리극에 관심이 많은 김재엽의 선택이 잘 맞아떨어졌다. 다만, 최소한의 음악에 대한 소양과 정치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모험이었다. 공연의 완성도 면에서는 가발과 일부 의상의 부자연스러움, 그리고 캐스팅에 아쉬움이 남았다. 막스에게 좀 더 개연성이, 얀에게 배우로서의 흡인력과 매력, 체코의 주변 인물들에게 좀 더 캐릭터 해석력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모든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록 음악을 중심으로 한 흥겨운 공연이면서도 대중음악과 정치와 지식인의 관계를 풀어 나간 <록앤롤>은 그 스케일과 세련된 관점의 면에서, 그리고 20세기 말 유럽을 배경으로 소멸해 가는 공산주의를 생생하게 그렸다는 점에서 국립극단에서 다룰 만한 연극이었으며 그동안 해마다 되풀이되었던 셰익스피어 희극 무대보다는 신선한 기획이었다고 본다.



©싸니아일랜드

록앤롤 Rock 'N' Roll 2018. 11. 29 — 12. 25 명동예술극장 24회, 190분 (인터미션 15분)	스티븐·피리 부는 남자 김세환	Eleanor Zhang Zia Esme Jung Sae-byul Alice Lee Da-hye Ferdinand Kim Han Lenka Yang Savine Nigel Jeong Won-jo Milan Choi Ji-hoon Gillian/Magda/ Candida Kang Hae-jin Stephen/The piper Kim Se-hwan
스태프 작 톰 스토파드 연출 김재엽 번역 손원정 무대 서지영 조명 최보운 의상 오수현 음악 한재권 분장 이지연 소품 서정인 영상디자인 정병목 영상기술 윤민철 조연출 박예슬, 이홍익	STAFF Written by Tom Stoppard Director Kim Jae-yeop Translator Son Won-jung Set Seo Ji-young Lighting Choi Bo-yun Costume Oh Soo-hyun Music Han Jae-kwon Make-up Lee Ji-youn Prop Seo Jeong-in Video Jung Byung-mok Video technician Yoon Kennikie Assistant director Park Ye-seul, Lee Hong-ik	
출연 막스 강신일 얀 이충무 엘레나 장지아 에스메 정세별 엘리스 이다혜 페르디난드 김한 렌카 양서빈 나이젤 정원조 밀란 최지훈 질리안·마그다·캔디다 강해진	CAST Max Kang Sin-il Jan Lee Jong-moo	



©나승열



공동창작 연출 부새롬
Devised theater
Directed by Pu Sae-rom



연출가들의 실험적인 신작을 소개하는 젊은연출가전. 그동안 사회적 이슈와 소외된 인물을 조명하는 작품들을 선보여 온 부새롬 연출의 <2센치 낮은 계단>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 주변인의 악몽과도 같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한 작품이다. ‘죄’와 ‘복수’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마침내 복수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의 여정을 따라가고자 한 연출의 의도를 바탕으로 연출가와 여섯 명의 배우들이 역할의 경계를 허물고 공동창작을 통해 완성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딸에게 벌어진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사건과 죽음들. 고통과 슬픔, 분노가 가득 찬 가운데 ‘누군가’는 치밀하면서도 은밀하게 복수의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상상한다는 내용으로, ‘복수심’과 관련하여 사회가 아닌 개인의 영역을 살펴보았다.

This year's Young Directors Series showcased *A Step Two Centimeters Shorter*, directed by Pu Sae-rom, whose previous works cast light upon important social issues and marginalized people. Born out of curiosity about “sin” and “vengeance,” this project was completed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Pu and the six cast members, who seek to tear down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roles. The six different incidents and deaths that occur each concerned someone's husband or someone's daughter. Filled with agony, sorrow and anger, “someone” endlessly envisions a secretive yet meticulous plan for revenge that details every step involved. The play particularly considered the realm of the individual rather than the realm of society in relation to “vengeance.”

A. 시도나 의도는 과감했으나, 관람 후에는 오히려 이런 주제 의식 혹은 질문을 구현하는 데 왜 공동창작이라는 방식을 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작품이었다. 공동창작이라는 창작방식을 중심에 놓는다면 보다 단순하면서 묘사 위주가 아니라 구성이 가능한 소재나 주제를 택했어야 할 것이고, ‘복수자의 심리’가 중요했다면 전문적인 극작을 통해 의도한 바를 더 철저하게 관철할 필요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어느 쪽이 되었든 과감한 선택을 통해 연출가 부세롬의 장점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작품이다.

B. 복수를 꿈꾸며 계획하는 사람은 마지막 계단이 2센치 낮다는 것까지 꼼꼼히 체크할 것이라는 발상이 세심하면서도 진지하게 느껴졌다. 그뿐만 아니라 무대화에 있어서도 세심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코드를 숨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복수를 꿈꾸는 인물들의 성(性)을

뒤바꿔 놓음으로써 누군가를 남성, 여성으로 규정했을 때 특정한 이미지와 선입견이 따라오는 것을 차단했다.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분노가 아닌 ‘사람’의 분노를 구현하려 한 목표에 아주 충실하고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배우들이 캐릭터를 지워 버린 옷을 입고 연극의 시작을 열고 끝을 맺음으로써, 무대에서 보여 준 인물들의 비극과 그들이 겪은 분노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니며 객석에 앉아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웅변하듯 보여 주었다.

공연협정회 회의록 중



©워크룸

2센치 낮은 계단
A Step Two
Centimeters
Shorter
2018.5.30 — 6.18
소극장 판
18회, 80분

스태프
공동창작
연출 부세롬
드라마투르기 김나벳
무대·소품 김다정
조명 최보운
의상 김지연
분장 장경숙
음악 황현우
음향 임서진
영상 윤민철
조연출 조예은
기록 이예민

출연
아무1 마두영
아무2 백석광
아무3 김정
아무4 신정원
아무5 조재영
아무6 노기용

STAFF
Devised theater
Director
Pu Sae-rom

Dramaturg
Kim Na-byeot
Set/Prop
Kim Da-jung
Lighting
Choi Bo-yun
Costume
Kim Ji-yeon
Make-up
Jang Kyoung-suk
Music
Hwang Hyun-woo
Sound
Lim Seo-jin
Video
Yoon Kennikie
Assistant director
Cho Ye-eun
Rehearsal archivist
Lee Yea-min

CAST
Someone 1
Ma Du-young
Someone 2
Baek Seok-gwang
Someone 3
Kim Jeong
Someone 4
Shin Jeong-won
Someone 5
Joe Jae-young
Someone 6
Roh Gi-yong



©이강물



©황승택(성연진)

젊은극작가전

얼굴도둑

Face Stealer



작 임빛나 연출 박정희
Written by Lim Bit-na
Directed by Park Jeong-hee

2회째를 맞이하는 젊은극작가전에서 선보인 작품은 국립극단 ‘작가의 방’ 2기 작가 임빛나의 <얼굴도둑>이다. 2017년 낭독 공연에서 공개되어 깊은 몰입감과 탄탄한 구성으로 많은 관객의 호평을 받았던 <얼굴도둑>은 노련한 중견 연출가 박정희를 만나 한층 더 성장한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엄마와 딸의 어긋난 관계를 통해 인간의 심리와 내면의 갈등을 예리하게 풀어낸 작품으로,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돌아봄으로써 연극이 갖는 동시대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다.

The play *Face Stealer* was written by Lim Bit-na who took part in the second round of the New Writing workshop program and was selected for the 2nd Young Playwrights Series. The reading performance of the play in 2017 drew praise from the audience for its highly immersive plot and tight structure. In the hands of seasoned director Park Jeong-hee, *Face Stealer* proved to be even more powerful when fully staged. The twisted mother-daughter relationship sharply reflected human psychology and the internal conflicts many people face. By looking closely at the dark side of modern society, the audience was once again challenged to consider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drama.

©황승택(이지혜, 황선화)

A. 이 작품은 ‘모성 신화’를 다루지만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대담한 서사를 갖추고 있어 신선하게 다가온다. 딸의 죽음을 쫓아가는 추리 서사로 몰입도를 높였고, 그 과정에서 ‘어긋난 모성’이 드러나며 관객의 공감을 사는 데 성공했다. 또한 엘리베이터 여자 같은 딸의 상상 속 세계가 딸의 죽음에 대한 단서로 작용하면서 극적 긴장감을 유지시켰다. <얼굴도둑>은 2017년 ‘작가의 방’을 통해 낭독 공연을 거쳐 정식 공연을 올린 사례다. 이 같은 국립극단의 작품 개발 구조가 신진 희곡작가들의 실질적인 등용문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B. 임빛나 작가의 대사는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이는 곧 임빛나의 잠재력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연출은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고 파고드는 능력이 있고, 무대 활용 방식은 관객들에게 극적 긴장감을 선사한다. 또한 벼랑 끝에 선 인간의 심리를 능숙하게 표현한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다. 이러한 조합이 작품이 지닌 개성을 잘 풀어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결정하고 강요하는 것이 현대에도 유효한가 묻는다면 확답하기 어렵다. 가족에서 조직 혹은 사회의 갈등 구조로 시야를 확장시키기에는 작품의 구조가 폐쇄적이다.

공연협평회 회의록 중



©더블디

얼굴도둑
Face Stealer
2018. 5. 11 — 6. 3
백성희장민호극장
21회, 100분

스태프
작 임빛나
연출 박정희
드라마투르기
진용석
무대 신승렬
조명 김창기
의상 홍문기
음악 장영규, 김선
분장 백지영
영상 윤민철
소품 김혜지
움직임 고재경
연기자문 장재키
음향 최유진
조연출 최정환, 채유니

출연
엄마 성여진
유한민 이지혜
형사 신안진
점쟁이 여자 주인영
엘리베이터 여자
황선화
직장 동료 우정원
남자친구 이호철

STAFF
Written by
Lim Bit-na
Director
Park Jeong-hee
Dramaturg
Jin Yong Seok
Set
Shin Seung-ryul
Lighting
Kim Chang-key
Costume
Hong Moon-gi
Music
Jang Yeong-gyu,
Kim Sun

Make-up
Baek Ji-young
Video
Yoon Kennikie
Prop
Kim Hye-ji
Movement
Ko Jae-kyung
Acting coach
Jang Jackie
Sound
Choi Yu-jin
Assistant director
Choi Jeoung-hwan, Choe Yu-ni

CAST
Han-min's mother
Sung Yeo-jin

Yoo Han-min
Lee Jee-hye
Detective
Shin An-jin
Fortune-teller
Joo In-young
Woman met in an elevator
Hwang Sun-hwa
Colleague
Woo Jeong-won
Han-min's boyfriend
Lee Ho-cheol

©황승백(성여진, 이지혜)





©나승열(전미도, 손상규)

오슬로

Oslo



작 J.T. 로저스
번역 고영범 연출 이성열
Written by J. T. Rogers
Translated by Koh Young B.
Directed by Lee Sung-youl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지역의 최초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실화를 소재로 한 <오슬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극작가 J.T. 로저스가 희곡을 썼고 영미권 주요 연극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공연이다. 한국에서는 남북 및 북미 긴장 완화와 평화협정 과정이 진행되는 적절한 시기에 관객들을 만났고, 작품을 통해 현재 우리의 상황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립극단 이성열 예술감독의 취임 이후 첫 번째 연출작으로 그만의 탁월한 연출력과 손상규, 전미도, 김정호 등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한 배우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작품이다.

J. T. Rogers's new play, *Oslo* started off with the tragedy on the Gaza Strip where gunfire ceaselessly reverberates to pull the audience into the dramatic true story of the nine stressful months of secret negotiations that led to the signing of the Oslo Accords and the historic handshake between the Israeli Prime Minister and the PLO leader. The multi-award winning play met the Korean audience at the right time when the tens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was relaxed, providing a moment to ponder over the current diplomatic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production was the first work directed by the new artistic director of NTC Korea, Lee Sung-youl and his fast-paced and quick-witted staging enhances the powerful acting of the strong cast.

©나승열(손상규, 전미도)





©나승열(임준식, 김정호, 전미도, 최지훈, 정승길)



©일상의실천

오슬로
Oslo
2018.10.12—11.4
명동예술극장
180분
(인터미션 15분)

스태프
작 J.T. 로저스
연출 이성열
번역 고영범
드라마투르기
조만수
무대 이태섭
조명 김창기
의상 이수원
영상 신성환
음악 김선
음향 김서영
분장 이동민
소품 김혜지
무대감독 민상은
조연출 박문수,
김세홍

출연
티에유 로드-라르센
손상규
모나 올 전미도
요한 요르겐 홀스트
민병욱
마리안느
하이베르그·미국인
외교관 김수아

아흐메드 쿠리에
김정호
하산 아스푸르 임준식
요엘 싱어 정승길
유리 사비르 최지훈
야이르 허시펠트
정원조
론 폰다크 외 이호철
얀 에겔란드·시몬
페레스 강진휘
토릴 그란달·스웨덴인
객실 관리인 유수미
요시 베일린·핀
그란달 김정환
트롤 외 강해진
토르 외 조남웅

STAFF
Written by
J.T. Rogers
Director
Lee Sung-youl
Translator
Koh Young B.
Dramaturg
Cho Man-su
Set
Lee Tae-sup
Lighting
Kim Chang-key
Costume
Lee Soo-won
Video
Shin Johannes

Music
Kim Sun
Sound
Kim Seo-young
Make-up
Lee Dong-min
Prop
Kim Hye-ji
Stage manager
Min Sang-eun
Assistant director
Park Moon-su,
Kim Se-hong

CAST
Terje Rød-Larsen
Son Sang-kyu
Mona Juul
Jeon Mi-do
Johan Jørgen Holst
Min Byung-wook
Marianne Heiberg/
American diplomat
Kim Su-ah
Ahmed Curie
Kim Jeong-ho
Hassan Asfour
Im Jun-sik
Joel Singer
Chung Seung-gil
Uri Savir
Choi Ji-hoon
Yair Hirschfeld
Jeong Won-jo

Ron Pundak et al.
Lee Ho-cheol
Jan Egeland/
Shimon Peres
Kang Jin-hwi
Toril Grandal/
Swedish hostess
You Soo-mi
Yossi Beilin/Finn
Grandal
Kim Jung-hwan
Troll et al.
Kang Hae-jin
Thor et al.
Cho Nam-yung

공연합평회 회의록 중

A. 이 연극의 강점은 소재가 실화라는 점, 그리고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동화에 가까운 실화이기 때문에 이 공연의 성패는 인물들의 사실적 연기의 내적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손상규, 김정호를 비롯한 거의 모든 배우들이 훌륭한 연기와 앙상블을 보여 준 것이 공연 성공의 원인이 되었다. 3시간 길이에 쉽지 않는 내용임에도 연출자와 연기자들이 작품의 매 순간을 디테일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맞물렸기에 평화를 향한 의지의 승리가 주는 감동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막연한 낙관주의나 감상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 봤다.

B. 평면적일 수 있는 희곡을 입체적이고 리듬감 있게 연출해 냈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정보량으로 인해 늘어지기 쉬운

템포를 과감하게 높인 점이 주효했던 것 같다. 입체감과 깊이를 구현하는 데는 연출뿐 아니라 배우들도 큰 기여를 했다. 각 배우의 개성 있는 연기들이 도드라지고 또 어우러지는 합주를 보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특히 해설에 가까운 역할로 애매해질 수 있는 모나 역을 맡은 전미도 배우의 연기가 매력적인 캐릭터와 잘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인 중심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C. 우리가 최근에 처한 정치적인 상황과 딱 어울리는 번역극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시의성이 충분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일반 관객들은 다소 보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이런 연극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은 국립극단밖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11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8 공연 베스트 7
제55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나승열(손상규, 김정호)



작 윤미현 연출 최용훈
Written by Yun Mi-hyun
Directed by Choi Yong-hun

〈텍사스 고모〉는 윤미현 작가의 신작으로 제4회 ASAC(안산문화예술의전당) 희곡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국립극단과 안산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과거 결혼 이주의 피해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결혼이라는 수단으로 피어내 노동을 강요하는 가해자가 되었다. 이 작품은 그러한 과거와 현재를 병치하여 현실의 부조리함을 잘 보여 준다.

36년 전, 주한 미군 리처드를 따라 텍사스로 떠난 춘미. 수영장이 딸린 집에서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마실 줄 알았지만 정작 리처드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의 앞에는 옥수수밭과 목화밭만이 끝없이 펼쳐졌다. 오늘날 한국 괴산 땅에 사는 춘미의 오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어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한국에 유학하러 가는 줄 알고 왔지만, 그녀의 손에는 책이 아니라 낫과 호미만이 쥐어질 뿐이다.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춘미는 36년 전 미국 땅에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My aunt went all the way to Texas to follow a man named Richard who she met in town. She dreamed of a life where she could gracefully drink cups of coffee in a beautiful bikini but as it turned out, her real life was like... a dried up ear of corn. 36 years later, a woman came to study in Goesan from Kyrgyzstan. She dreamed of returning home as a successful person, but found herself holding onto a hoe rather than a book. Her life was like the last crumb of lepyoshka. Here, in a place filled with the sound of wind and the songs of bugs, the lives of the two women unfolded like a decalcomania.





©SUPA GROUND(김은아)

공연협력회 회의록 중

A. 왜곡된 사회구조를 희곡에 그대로
들추어내며 낯것의 언어로 가시화하는
스타일은 윤미현 작가만의 특기다.
<텍사스 고모>의 장점은 무엇보다 여성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논리를 설명하지 않고 일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극에 몰입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의
위치 역전을 인식하는 동시에 가해
의식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물론
관객의 마음을 연 데는 진중한 연출 또한
한몫했다.

B. 한 사회의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온 윤미현
작가의 문제의식에 박수를 보낸다.
관객은 텍사스 고모의 삶을 보며 멀지
않은 과거의 우리 모습과 현실을 깨닫게
된다. 키르기스스탄 여성과 소철의
캄보디아 엄마, 부탄 출신 며느리를 통해
그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을 우리
스스로의 인식과 대비시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제55회 동아연극상 희곡상(윤미현)



©써니아일랜드

텍사스 고모
My Aunt in Texas
2018. 11. 2 — 25
백성희장민호극장
21회, 100분
국립극단·
안산문화재단
공동제작

2018. 10. 26 — 27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스태프
작 윤미현
연출 최용훈
무대 이임지
조명 김성호
의상 강기정
음악 이형주
음향 강수룡
분장 백지영
소품 노주연
조연출 김정민, 백창하
무대감독 문원섭

출연
텍사스 고모 박혜진
아빠 김용준
멕시코 아줌마·소철
할머니 이수미
마을 부녀회장 이정은
사춘기 딸 주인영
소철 이기현

동네 어린이 홍승만
장사 아줌마·소철
엄마 김은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여자 윤안나

STAFF
Written by
Yun Mi-hyun
Director
Choi Yong-hun
Set
Lee Um-gi
Lighting
Kim Seong-ho
Costume
Kang Gi-jung
Music
Lee Hyung-ju
Sound
Kang Su-ryong
Make-up
Baek Ji-young
Prop
Noh Joo-yeon
Assistant director
Kim Jung-min,
Baek Chang-ha
Stage manager
Moon Once-up

CAST
Aunt from Texas
Park Hye-jin
Dad
Kim Young-jun

Mexican woman/
So-cheol's
grandma
Lee Soo-mi
Head of Village
Women's Society
Lee Jeung-eun
Teenager daughter
Joo In-young
So-cheol
Lee Ki-hyun
Village boy
Hong Seung-man
Shop owner/So-
cheol's mother
Kim Eun-a
Woman from
Kyrgyzstan
Anna Elisabeth
Rihlmann



©SUPA GROUND (이수미, 김용준, 윤안나)

<말뚝의 눈물>은 2017년 초연 당시 한국 조선업의 흥망에 따라 업계 종사자들과 그 주변인들이 겪은 삶의 변화를 생생하게 묘사하여 호평받은 작품으로 2018년 국립극단 초청으로 재공연되었다. 조선소 인근 하숙집을 배경으로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인력은 줄고 작업량은 늘어난 상황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와 노동자 간에 벌어진 날 선 대립을 그렸다. ‘말뚝의 눈물’이라 불리는 대형 골리앗 크레인 위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하는 젊은이 진수를 비롯해, 현장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대한 작가의 인간적인 시선과 믿음이 다시 한번 호평받았다.

In *Tears of Malmoe*, the workers of a shipyard face an unfortunate turn of their lives as the industry struggles with the global downturn. With a wave of restructuring, work related accidents gradually become a run-of-the-mill everyday occurrence and they finally stage a sit-in on top of the Goliath crane to let the world know the true conditions in the shipyard. Kim Su-hee, the playwright and director of the play vividly reproduced her childhood memories on Geoje Island on the stage.



©이강물(남문철, 남미정, 권태건)



©스튜디오 불땀 IMAGE 노운

말뚝의 눈물
Tears of Malmoe
2018.4.6 — 22
백성희장민호극장
15회, 130분
제작 극단 미인
주최 국립극단, 극단 미인

작·연출 김수희
무대 이창원
조명 박선교
영상 윤민철
의상 이명아
분장 지병국
음악감독 전송이
안무 강미선
움직임 고재경
무대감독 서지원
조연출 전정욱, 정소윤

출연
강두금 남미정
황근석 남문철, 정나진
최은옥 이정은
정미숙 박성연
김수현 최정화
김인하 조주현
박정길 권태건
황진수 김규도
고정현 전익수
카메라맨·과장·우체부
편규상

STAFF
Written & directed by
Kim Su-hee
Set
Lee Chang-won
Lighting
Park Sun-gyo
Video
Yoon Kennikie
Costume
Lee Myoung-ah
Make-up
Ji Byoung-gook
Music director
Jun Song-yi
Choreographer
Kang Mi-sun
Movement
Go Jae-gyeong
Stage manager
Seo Ji-won
Assistant director
Jeon Jeong-uk,
Jeong So-yun

CAST
Gang Du-geum
Nam Mi-jung
Hwang Geun-seok
Nam Mun-cheol,
Jung Na-jin
Choi Eun-ok
Lee Jeung-eun

Jeong Mi-suk
Park Sung-yeon
Kim Su-hyeon
Choi Jeong-wha
Kim In-ha
Cho Ju-hyun
Park Jeong-gil
Kwon Tae-geon
Hwang Jin-su
Kim Gyu-do
Go Jeong-heon
Juen Ik-su
Cameraman/
Manager/Postman
Pyeon Gyu-sang

국립극단 초청 공연

A. <말뚝의 눈물>과 같이 노동자가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국립극단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엄청난 미학적 성과를 이루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보다 세련된 화술과 방식으로 관객에게 다가간다면 작품의 생명력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B. 평등 사회, 노동자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더불어 노동문제를 일상의 문제로 보고, 또 여성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강물(정나진)

2017년 연극계 주요 상을 휩쓴 <손님들>은 국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존속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동시대의 사회상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 고연옥은 실제 사건과 한국의 정치사를 연극적 환상 속에 절묘하게 뒤섞어 한 가족의 비극을 진중하고도 흥미롭게 풀어냈다. 여기에 김정희의 재기 발랄한 무대 연출이 더해져 화제작이 탄생하였다. 길에서 만난 고양이, 학교 마당의 동상, 죽은 걸인 등을 손님으로 초대해 죽은 부모와 함께 식사를 시도하는 소년 역의 김하람은 감정의 폭이 큰 연기를 잘 소화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The much anticipated masterpiece, *The Visitors*, returned in 2018 after sweeping up a number of major theatrical awards the previous year. The playwright Ko Yeon-ock, exquisitely blends a parents-homicide, committed by their very own child, with a fantastical world that delves into the family tragedy with great taste, but also with great depth. With the wonderfully odd visitors invited by the boy in search of hope, the unpardonable family starts on a journey to be ordinary once again.



©이강물(임영준, 홍성락, 박종태, 이수미, 이진경)



©라프트 IMAGE 이상홍(제공:프로젝트 내친김에)

손님들
The Visitors
2018.6.26 — 7.15
소극장 판
18회, 90분
제작 프로젝트
내친김에
주최 국립극단

스태프
작 고연옥
연출 김정
무대 김은진
조명 신동선
의상 김우성
분장 백지영
음향 지미 세르
안무 권령은
드로잉 이상홍
조연출 박정호
무대감독 김성태
제작보 윤영은
제작프로듀서
조하나

출연
소년 김하람
아버지 임영준
어머니 이진경
손님2(오명) 박종태
손님1(3단지)
이수미
손님3(동수아저씨)
홍성락

소녀 오남영
STAFF
Written by
Ko Yeon-ock
Director
Kim Jeong
Set
Kim Eun-jin
Lighting
Shin Dong-sun
Costume
Kim Woo-seong
Make-up
Baek Ji-young
Sound
Jimmy Sert
Choreographer
Kwon Lyon-eun
Drawing
Lee Sang-hong
Assistant director
Park Jung-ho
Stage manager
Kim Sung-tae
Assistant producer
Yoon Yeong-eun
Producer
Jo Ha-na

CAST
Boy
Kim Ha-ram
Father
Lim Young-joon

Mother
Lee Jin-kyung
Visitor 2
Park Jong-tae
Visitor 1
Lee Soo-mi
Visitor 3
Hong Seong-rak
Girl
Oh Nam-young

공연평의회
회의록
역

A. <손님들>은 부모를 살해한 자식의 입장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항변한다. 그리고 그 항변을 통해 현대 사회의 공동체 문화가 지닌 치명적인 함정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이번 무대에서 보여 준 죽은 자들의 독특한 움직임은 마치 엽기적인 만화영화에 나올 법한 스타일로, 연출은 이를 통해 특별한 감흥을 선사했으며 보는 맛을 느끼게 했다. 또한 대사 사이사이에 즉흥적인 표현들을 삽입해 흥미를 유지시켰다. 때론 과하다 싶은 정도의 수식들이 없지 않았지만 내면에 흐르는 비극적 정서를 무리 없이 전달하였다.

2017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2017 한국연극협회 공연 베스트 7 초연작 부문
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
제11회 차범석희곡상
제54회 동아연극상 작품상·희곡상·신인연출상



©이강물(이진경, 김하람, 임영준)

리차드 3세 Richard III – Loyaulté Me Lie

연출가 장 랑베르-빌드는 이 작품에 직접 등장해 자신을 ‘리차드 3세’라고 여기는 ‘광대’역을 맡으면서 본인만의 광대(clowning) 화법을 통해 연극적 상상력이 가득한 무대를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였다. 국내 무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커다란 마술 장치 같은 무대 장치의 활용과 광대극으로 표현한 셰익스피어 극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The all-new *Richard III* completely transcended the more traditional hideous portrayal of a monstrosity. On a colorful circus-like stage stood two actors, restlessly dominating the audience as they transformed themselves into a mirage of different faces. As a director, adapter, and actor, Jean Lambert-wild’s playful imagination has boldly gone beyond Shakespeare. The life-infused balloons and dolls on stage busted vigorously with death. The audience only awakened from the endless nightmare when the crazed king finally left the swirling stage in solitude.



©스튜디오 봄빔 PHOTO Tristan Jeanne-Valès

리차드 3세
Richard III –
Loyaulté Me Lie
2018. 6. 29 — 7. 1
명동예술극장
3회, 130분
제작 리무쟁
국립연극센터
테아트르 드 튀니옹
주최 국립극단

스태프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각색 장 랑베르-빌드,
제랄드 가루티
공동연출 장 랑베르-
빌드, 로랑조
말라게라
음악·연주장-뤼크
테르미나리아
무대 스테판 블랑케,
장 랑베르-빌드
조명 르노 라지에
의상 아니크 세레
아미라

출연
리차드 3세 장
랑베르-빌드
레이디 앤 외
로르 올프

STAFF
Based on
William
Shakespeare
Adapted by
Jean Lambert-
wild, G  rald
Garutti
Associated
director
Jean Lambert-
wild, Lorenzo
Malaguerra
Music/Musician
Jean-Luc
Therminarias
Set
Stephane
Blanquet, Jean
Lambert-wild
Lighting
Renaud Lagier
Costume
Annick Serret
Amirat

CAST
Richard III
Jean Lambert-
wild
Lady Anne Neville
et al.
Laure Wolf

홍보씨

<변강쇠 점 찍고 옹녀>로 대한민국 창극의 위상을 알린 고선웅 연출이 이자람 음악감독과 함께 한층 더 자유롭고 거침없는 무대를 만들었다. 형과 아우가 뒤바뀐 설정, 외계인 중의 등장,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하는 홍보 등 ‘홍보가’를 기상천외하게 재해석한 <홍보씨>는 절묘하게 캐스팅된 배우들의 활약에 힘입어 중년층과 젊은 관객층 모두를 열광시켰다.

홍보씨
창작·작곡 이자람
극본·연출 고선웅
제작 국립창극단
주최 국립극단,
국립중앙극장
2018. 7. 13 — 22
9회, 120분
(인터미션 15분)

스태프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성녀
극본·연출 고선웅
작창·작곡·음악감독
이자람
안무 지경민
무대 김종석
조명 류백희
영상 이원호
의상 최인숙
특수의상 김수진
소품 장경숙
분장 강대영
편곡·음악조감독
김민수
조연출 서정완, 고서형

출연
홍보 김준수
놀보 최호성
마당쇠 최용석
정씨 이소연
황씨 김차경
연 생원 허종열
놀보 처 서정금
원님 이광복
그 외 국립창극단

심청가

‘판소리 다섯 바탕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창극의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한 국립창극단이 그 마지막 순서로 ‘심청가’에 도전했다. 현존하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비장미가 강하고, 춘향가와 함께 가장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심청가’를 새롭게 창조한 이 공연은 창극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웬만큼 소리에 능숙하지 않고서는 전 바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힘든 ‘심청가’를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들의 노래로 채워 우리 소리 본연의 깊이와 감동을 전달했다.

심청가
작창·도창 안숙선
연출 손진책
제작 국립창극단
주최 국립극단,
국립중앙극장
2018. 4. 25 — 5. 6
11회, 150분
(인터미션 15분)

스태프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성녀
대본·연출 손진책
작창·도창 안숙선
음악 이태백
소리 유수정
안무 고희균
무대 이태섭
조명 김창기
영상 김창연
의상 김영진
소품 이경표
음향 지영
분장 박효정
무대감독 양정원
조연출 최성호, 정지원
음악조감독 최영훈

출연
도창 안숙선, 유수정
어린 심청 민은경
황후 심청 이소연
뽕덕 김금미
심봉사 유태평양
그 외 허종열, 이영태,
이광복, 최호성,
김준수, 최용석,
박성우, 유기영,
강태관, 최광균,
정미정, 김지숙,
오민아, 나윤영,
김미진, 이연주,
왕윤정, 장서윤,
송나영, 안미선,
조준희, 한금채

* 올해는 다양한 소재와 파격적인 시도로 화제를 불러일으켜 온 국립창극단의 우수 공연 <심청가>와 <홍보씨>를 기획대관으로 초청하여 관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립극장의 관객층이 명동예술극장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공연장 운영 및 무대기술과 관련한 전면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국립극단과 오랜 역사를 같이해 온 국립극장과 상호 지원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작품 개발과 연구

국립극단은 창작극 개발을 포함한 창작 콘텐츠의 연구와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작품개발실을 신설하고 공연기획팀의 프로듀서들과 함께 다양한 작품 개발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였다. 창작 희곡을 찾기 위한 온라인 상시 투고 제도 ‘희곡우체통’과 함께 연출가의 실험의 장인 ‘연출의 판’이 신설되었다. 또한 우리 연극의 맥을 잇는 한국적 창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사업을 새로 시작하며, 굿과 탈춤을 포함해 우리 연극의 원형과 창작극 쇼케이스를 선보이는 1일 축제 ‘연극동네 연희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작품 개발 사업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조만수 평론가, ‘연출의 판’ 예술감독 윤한솔 연출가,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사업의 연희감독 김학수 연출가와 같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신규 작품 개발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렸다.

학술 부문에서는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과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사업과 관련하여 부문별 전문가와 학자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야기마당’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1920~1930 우리 연극의 풍경’과 ‘우여곡셀’이라는 부제를 달고 개최된 근대극과 전통 연극에 대한 토론회 내용은 자료집으로 엮어 출판하였다.

또한 남북 문화 교류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북한과의 본격적인 연극 교류를 대비하기 위해 ‘연극으로 남북 잇기’ 사업을 신설하고 북한 희곡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현장 연극인과 국립극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북한 연극 톨아보기’를 시행하였다. 이 밖에도 연극인을 위한 ‘탈춤 워크숍’과 국립극단 시즌단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여러 차례 열었고, 1950년 창단 이래 공연된 400편에 달하는 작품 자료와 7000명에 달하는 공연 참가자의 인명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에 착수하며 2020년 국립극단 7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연극동네 연희마당’

국립극단은 우리 시대 한국 연극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첫해인 2018년에는 연극계의 관심을 유도하며 공론화하기 위해 한국 연극 원형과 이를 현대화한 창작극을 함께 선보이는 1일 축제 ‘연극동네 연희마당’을 개최하였다. 전통 연희 전문가들이 직접 선보인 우리 전통 연극의 원형들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 탈춤과 동시대 이야기를 접목한 창작 쇼케이스를 통해 전통의 현대화의 가능성을 접목했다. 이렇게 한국 연극의 맥을 잇고자 하는 국립극단의 시도에 많은 연극인들이 공감과 호평을 보냈다.

운영

연희감독 김학수(연출가, 극단 사니너머 대표)

2018.9.30 16:00 - 22:00 국립극단 서계동 마당 및 백성희장민호극장

프로그램

첫째마당 옛날 연희

가면무 <나희> 16:00 - 16:20 중앙마당

굿 <황해도 철물이 굿> 16:20 - 17:50 백성희장민호극장

탈춤 <고성오광대> 18:00 - 18:40 중앙마당

둘째마당 창작 연희

<양반을 찾아서> 19:00 - 19:50 중앙마당

이야기마당

<우여곡셀> 20:00 - 22:00 중앙마당



©김도표<나희>



©박정옥

첫째마당 옛날 연희

가면무 <나희>

전통적으로 마을의 동제나 축제에 앞서 마당을 정화하고 희망을 심어 주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를 ‘나례’(儼禮) 또는 ‘나희’(儼戲)라고 하였다. 축제의 시작을 연 나희는 축제의 장소인 국립극단 서계동 마당을 정화하여 부정을 막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요란한 타악과 함께 마당에 나타난 역귀들을 물리치고 정화하는 과정을 담았다.

출연 처용 조정근 방상시 선영옥 허창열
역귀 김용훈 조만희 손병호 이의태
12지신 주영호 전지환 오원석 박다열
이상영 위연승 이소은 나현철 문도연
박범태 대고연주 안대천 최영호

* 연희집단 THE광대, 청배연희단 등 소속

굿 <황해도 철물이 굿>

‘철물이 굿’은 집안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집안 굿으로 탁월한 연극성을 자랑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볼거리가 풍성하고 연극성이 두드러지는 여섯 거리를 선정해 90분 무대용 공연으로 압축하여 선보였다. 평산소놀이굿 예능이수자이기도 한 박정옥 명창의 수많은 인물을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력과 재담, 소리에 화려한 의상이 곁들여져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굿이 가진 연극성을 극대화했다.

연희 박정옥 최은호 김점순 김정화
김완아 연주 김순희(장고) 김민숙(징)
김필홍(피리) 이재용(해금)

탈춤 <고성오광대>

전통 탈춤에서 동시대의 새로운 연극적 문법을 발견하고, 탈춤의 해학적인 요소와 재담을 창작극에 적용할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를 초청했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13종의 탈춤 중에서 ‘고성오광대’는 몸의 언어가 연극과 가장 자연스럽게 만나는 탈춤으로 평가받는다. 고성오광대보존회 회장 이윤석을 비롯한 중장년 전수자들이 ‘고성오광대’의 주요 과장을 직접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출연 예능보유자 이윤석 전수조교
이재훈 이호원 이태영 전광열 황종욱
이수자 이도열 이영상 정채승 하현갑
남진도 윤현호 김성범 허창열 최영호
안대천 고석진 최민서 전수자 이돈근
선영옥 양준영 홍석민 김다현 정연석
김경현

둘째마당 창작 연희

쇼케이스 <양반을 찾아서> - ‘비비’의 노정기(路程記), feat. 고성오광대

‘고성오광대’의 등장인물을 활용하여 재창작한 대본을 실제 탈춤 시연과 함께 구현함으로써, 한국 전통 공연예술에서 한국적 연극성을 발견하고 동시대 연극으로 재창작한다는 사업 기획 의도를 구체화했다. 제1회 벽산희곡상을 수상한 한현주 작가가 집필하고 김학수 연희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2018년 여름에 서울과 고성에서 개최된 국립극단 탈춤 워크숍에 참여한 연극 배우들과 전문 연희자가 함께한 창작극으로, 전통 가면극을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성오광대’ 속 전설의 인물 ‘비비’가 오늘날 서울의 편의점에 나타난다는 설정을 통해 부패한 권력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스태프

작 한현주 연출 김학수 무대·공간 손호성
의상 황연희 소품 김혜지 안무 허창열
음악 김시울 조연출 황준형 조연출보
박현지

출연
배우 김선화 김성혜 박선헤 박지영
백혜경 이현지 광영현 정선희 김강현
조용의 주창환 이성수 조재욱
최문혁 금재선 연희집단 THE광대
안대천 선영욱 허창열 최영호 악사
김영민(기타) 손원진(퍼커션) 청배연희단
박범태(태평소)

쇼케이스 연계 워크숍

탈춤 워크숍

2018년 여름, 쇼케이스 <양반을 찾아서>
제작에 앞서 국립극단 탈춤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 15명이 국립극단에서의 사전 강습과
경남 고성에서의 현지 연수를 통해 우리 연극
원형의 몸짓과 언어를 체험했다.

참가자 쇼케이스 <양반을 찾아서>

출연진 전원

2018.7.23 — 8.18

입문 - 탈춤 워크숍

고성오광대, 양주별산대, 봉산탈춤 등
탈춤의 기본 춤사위 학습으로 재담 및
움직임 등 탈춤의 연극적 요소를 익히는
훈련

7.23 — 8.3 총 6일(18시간)

강사 허창열(고성오광대 이수자,
천하제일탈공작소 대표)

심화 - 고성 현지 연수

고성오광대놀이 기본 춤 및 과장 실습을
통한 원형 체험

8.12 — 18 총 7일

강사 고성오광대보존회 전승자 이윤석
회장, 황종욱 사무국장 외

탈 만들기 워크숍

탈춤 워크숍의 후속 교육 과정으로 배우들이
직접 탈을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희자가 광대탈을 직접 제작했던 전통적
창작 과정을 체험하고 인물 분석을 통해
작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배우들이 각자의 개성을 담아 만든
탈은 후에 공연에서 사용했다.

강사 김혜지(소품 디자이너)

2018.9.20 — 21 총 2일(6시간)

이야기마당

<우여곡설(說)> - 전통과의 만남을 시도했던
연극 연출가들의 우여곡절을 썰로 풀다!

공연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극인들이 모여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과
전통 연희를 활용한 연극 창작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통과의 만남을 꾸준히 시도한 연출가부터
이제 막 전통에 입문한 연출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창작자들이 모여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술적인 심포지엄 방식을
탈피해 담소를 나누는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행사를 구성하고, 동시대 판소리와
꼭두각시놀음을 찬조 공연으로 마련했다.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축제가 끝난 후 2차
좌담회를 가졌으며, 연출가들의 좌담 내용을
기록집으로 엮어 발간했다.

사회 길해연(배우)

참가 이수인(떼아뜨르 봄날) 남인우(극단
북새통) 변정주(전 극단 우투리)

이은진·심재욱(바바서커스) 신재훈(극단
작은방) 임영욱(희비쌍곡선)

찬조공연

희비쌍곡선 <필경사 바들비>

박인혜(소리) 김성근(고수)

극단 사니너머 <돌아온 박첨지>

유성진 조원종 김현중 이혜리

김경희 소재연 이장순



©김도민(황해도탈놀이굿)

연출의 판

2018년 신설된 ‘연출의 판’은 창작극 및 작품의 개발과 발굴에 힘쓰고자 하는 신임 예술감독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연출가 초청 작품 개발 및 제작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 연출가가 해외에 소개되고 진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연출가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해외 창작자 초청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2018년에는 판 예술감독 윤한솔(극단 그린피그 대표)을 필두로 연출가들이 모여 각자 천착해 온 연출 미학을 집단 토론과 개별적 고민의 접목을 통해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매년 주제를 정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면서 연극 창작자로서의 개인이 변화를 도모할 기회를 제공하고,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중간 과정을 자유로운 형식의 쇼케이스로 관객과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극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하윤영(아기(baby)) 하수민 작·연출



©하윤영(잉그리드, 범람) 김지나 구성·연출

2018년 주제
국립극단 연극선언문

쇼케이스 일정

9.8 — 10 박해성 <프로토콜>

9.15 — 17 남인우 <가제 317>

10.5 — 7 하수민 <아기(baby)>

10.13 — 15 김지나 <잉그리드, 범람>



©스튜디오 이자우

박해성 상상만발극장 연출, 응용연극연구소 연구원

주요작 <믿음의 기원 1> <믿음의 기원2: 후쿠시마의 바람> <코리올라너스>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 <타이타스> <아이에게 말하세요, 가자지구를 위한 연극> <유사유감> <3분 47초> <자유가 우릴 의심케하리라> <넌 위한 날 위한 너> 외
수상 2018 윤영선연극상

<프로토콜>

창작 응용연극연구소
출연 김나뵈 김형연 박해성 선명균 신지우
조성옥(응용연극연구소)
제작진행PD 이시은
영상·음향기술 윤민철(인터랙션랩)
조명·무대 김형연

“연극은 이미 시작되었다.”

응용연극연구소는 무엇이 연극(예술)을 신화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극을 규정하고 제작하고 상연하고 수용하는 일체의 형식과 약속 전반을 의심함으로써 작업을 시작했다. 각각 공정·일상·이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연구의 과정과 일상을 유튜브를 통해 기록하면서 축적하고 사전 노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소개하는 연구 발표회 형식의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남인우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및 상임연출, 판소리 만들기 ‘자’ 예술감독

주요작 <가문장 아기> <판소리 – 사천가> <판소리 – 억척가> <소년이 그랬다> <경기소리극 – 브루스니가 숲의 노래> <러브> <봉장취> <보이 겿츠 걸> <창극 – 내 이름은 오동구> <북새통의 겨울이야기> <창극 – 만복사저포기> 외
수상 2017 한국연극 베스트 7 (<봉장취>), 2016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연출상·최고인기상(<봉장취>), 2012 서울어린이연극상 연출상·음악상·연기양상블상(<재주 많은 다섯 친구>), 2012 한국연극 베스트 7(<소년이 그랬다>)

<가제 317>

창작 강현주 김정민 김진희 남인우 라지웅 문승배 신현실 이예은 이유진 이윤정 이자람 전영 최다운 홍단비 황상경 황아름 음향 남관우

“연극선언문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왜 영향을 받았는가?”

전쟁에 참여했던 아버지와 이와 관련된 일련의 경험과 기록들, 그리고 연출가인 나와 동료들의 경험을 통해 실제 없는 국가에서 소수의 개인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과 트라우마들에 대해 공유하고, 조사하고, 이야기한다.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 쇼케이스에서는 극장에서 구운 빵을 관객과 함께 먹으며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선언문을 만드는 등 관객 참여형 활동을 진행했다.

하수민 즉각반응 대표 및 연출, 사계절 연극제 대표 및 동인

주요작 연극 <유령 Live Stream> <햄릿릿햄> <2017 애국가 – 함께함에 대한 하나의 공식> <임영준 햄릿> <무라> <육쌍동이> <GOOD DAY TODAY> <지하철 손님> 외, 영화 <이혼합시다> <무라>

〈아기(Baby)〉

작·연출·무대 하수민

조명 남경식

의상 홍문기

소품·무대감독 심민섭

작곡·음향 지미 세르

조연출 황인덕

출연 손성호 이주영 최영열 배선희 박시영

심민섭 황인덕 이재근

“연극의 공공성은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다.”

연출가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아기.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라는 허구적 존재를 통해 나와 너 그리고 사회의 연결점에 대해 고민했던 작업이다. 한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과 연결됐던 여섯 명의 기억을 대사 중심이 아닌 인간의 육근(눈, 코, 입, 귀, 몸, 마음을 뜻하는 불교 용어)으로 대표되는 감각을 통해 표현하고자 시도했다.

김지나 이언시 스튜디오

주요작 〈본 공연은 자막이 제공됩니다.〉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우리 사이는 봄과 같이 불편하고〉〈어느 노멀한

날의 오후에, 무대에서는〉〈즉흥을 즐길 줄 아는, 용기 있는 당신을 위하여〉〈식탁(이타적 식탁)〉〈당신이 그리운 풍경 속으로 멀어져 간다는 것은〉 외

〈잉그리드, 범람〉

구성·연출 김지나

공동구성 허영균

조연출 정찬영

음향 정혜수

조명 노명준

기록 김은혜

출연 김진곤 송은지 류제승 황재희 정연주

최귀웅 강병구 이화 정명균 정보람

“나는 누구이며, 저 밖은 어디인가?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실험의 시작은 의심의 시작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 연출가는 당연하게 여기고 진행했던 연극의 과정을 되짚다가 ‘연습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연습이 가능할까’, ‘존재의 불안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른다. 그리고 극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온라인상에서만 연습을 진행할 팀을 꾸리고, 쇼케이스 직전 극장에서 배우들을 만나 쇼케이스를 완성하는 것을 시도했다.



©영대극(프로토타입) 응용연극연구소 창작, 박혜성 연출



©영대극(가제317) 공동창작, 남인우 연출

희곡우체통

국립극단은 숨어 있는 우수 희곡을 발굴하여 창작극 레퍼토리로 개발하는 창작 희곡 온라인 상시 투고 제도 ‘희곡우체통’을 2018년 3월 신설했다. 접수된 희곡 중 우수작을 초청하여 배우, 관계자, 관객들이 함께하는 희곡 낭독회를 개최하고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갖는다. 2018년에는 총 173편의 희곡이 접수되었고, 8편의 작품이 낭독회를 통해 관객들과 만났다. 이 중 1차 낭독회 초대작 <고독한 목록>이 희곡우체통 운영진과 예술감독의 논의를 거쳐 2019년 젊은극작가전 공연작으로 선정되었다.

2018년 운영진

우체국장 조만수(평론가)

운영위원 심재찬(연출가), 정명주(작품개발실장)



©정명주



©김지중



©슬로라이프

낭독회

1차<고독한 목록>

4.28 대학로 연습실

작 안정민

출연 박성연 양서빈 박경주 홍아론

이관목 이호철 강해진

작가 소개 창작 집단 푸른수염 대표. 구체적인 사건을 관통하여 인간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메타포로서의 연극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극작가, 연출가, 배우 등 전방위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작 <이방인의 만찬 - 난민연습> <제2의 창세기> <달은, 아니다> <이방인의 만찬> <페미그라운드> <M의 멸망> <검은 열차> <이토록, 사사로운> <구본장 벼룩아씨>

1차<우연히 태어나 필연히 날아가>

4.28 대학로 연습실

작 이미진

출연 박성연 양서빈 박경주 홍아론

이호철 강해진

작가 소개 서울예대 극작과를 졸업했다.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창작자 육성 사업인 ‘창의인재동반사업’에 선정되어 드라마 작가 분야로도 활동 분야를 넓히고 있다.

2차<괴화나무 아래>

5.19 스튜디오 하나

작 정영욱

출연 선종남 정인겸 하성광 백익남

이창수 정원조 양서빈 박경주 홍아론

정세별

작가 소개 관념적 언어로 인간과

사회를 통찰하는 작가 정영욱은 1999년 부산일보 신춘문에 희곡 부문에 <토우>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2012년 남산예술센터 상주 극작가로 활동했고, 이듬해 <농담>을 선보이며 “자본주의와 인간의 욕망을 세련된 은유와 상징으로 묘사했다”라는 평을 받았다.

주요작 <버들개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남은 집> <농담>

3차<노크 연습>

6.25 스튜디오 하나

작 진실

출연 홍윤희 최지훈 장지아 양서빈

이원희 김수아 임준식 이지혜

작가 소개 서울예술대학 극작과를 졸업했다. 세상을 향해 노크하며 마주하는 이야기를 쓰고자 한다.

4차<봄눈>

8.27 스튜디오 하나

작 김미정

출연 조영선 선종남 정인겸 성여진

박성연 도유재 박지아 김한 이원희

이기현 김별

작가 소개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희곡 부문에 <블랙홀>로 당선되어 등단한 이후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국내 다양한 연극제에 꾸준히 참가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간호사 출신으로 여성과 사회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작품에 드러낼 때도 그 안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 한다.

주요작 <낙원으로 추락하다>

<무지개를 사세요> <유실물> <꽃잎>

5차<ANAK - 나의 아이>

10.8 스튜디오 하나

작 진주

출연 홍윤희 이종무 장지아 이철희

황은후 이선헌 정세별 이형훈 김미수

유동훈

작가 소개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 전문사를 졸업했다. 2017년 국립극단 작가의 방 2기로 참여했고, 2018년 정동극장 창작집 대본

부문에 <정동극장부:비밀의 화원>이,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배소고지 이야기:기억의 연못>이 나란히 선정되며 젊은 극작가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주요작 <하시마:행간의 사람들>

<무지개 섬 이야기>,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6차<헤어드라이어>

11.19 소극장 판

작 손성연

출연 박완규 이지현 임준식 이호철

박희정 백혜경

작가 소개 서울예술대학 극작과를 졸업했다. 처음 쓴 단막극으로 칭찬을 받은 일이 원동력이 되어 극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흡수하려고 노력해 세계를 알록달록한 색종이처럼 접고 자르고 붙이는 극작가가 되고자 한다.

7차<배종옥, 부득이한>

12.10 소극장 판

작 김연재

출연 김문식 이수미 김광덕 채연정

박지아 김수아 이호철

작가 소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전문사 재학 중. 극단 작은신화의 창작극 발굴 프로젝트 ‘우리 연극 만들기’ 공모에 <언덕을 오르는 마삼식을 누가 죽였나>가 선정돼 2017년 정식 데뷔했다. 밀도 높고 촌촌한 언어로 인간 존재의 터무니없음에 깊이 개입하는 작가가 되고자 한다.

주요작 <언덕을 오르는 마삼식을 누가 죽였나> <우리가 고아였을 때>

<노트북 열람실> <모던걸타임즈>

<대경사>(10분 희곡 페스티벌)

<팬티를 벗는 시간>

국립극단은 북한과의 중장기 교류 협력을 위해 2018년부터 북한 연극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향후 북한 희곡 낭독 공연 및 북한의 국립연극단 초청 공연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연극 관련 소장 자료 조사를 시작으로 북한 대표 희곡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워크숍 ‘북한 연극 톺아보기’를 진행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초청 연출가 4명과 극단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스터디 형식으로 북한 연극 개론부터 북한 연극사의 대표작을 살펴보았다. 강의는 현대 북한 연극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박영정 실장이 직접 진행하였다.

강사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참가자 연출가(채승훈 최진아 안경모 서지혜), 국립극단 작품 개발 담당자 및 프로듀서들
주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극단



진행 일정

강의와 토론

7.31 14:00 – 16:00 스튜디오 하나
북한 공연예술 현황과 공연 제작·유통 시스템
7.31 16:00 – 18:00 스튜디오 하나
북한 연극의 역사적 조망
8.28 14:00 – 18:00 스튜디오 둘
남북 연극 교류 전망, 남북 연극 교류 방법론

희곡과 영상 텍스트 분석

8.7 14:00 – 18:00 스튜디오 둘
혁명연극 <성황당>, 경희극 <산울림>
8.14 14:00 – 18:00 스튜디오 둘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연극 <리순신장군>

현장 답사

9.12 – 13
‘예술인 통일문화캠프’에 참여하여 강원도 철원군 일대 답사

©김신중

국립극단은 제작공연의 출연진 양상불 향상을 도모하고 배우들에게 안정적인 출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시즌단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시즌단원 18명은 작품 출연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배우로서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스터클래스

하얀 광대(White Clowning) 연기법

흔히 서양의 광대라고 하면 ‘빨간 코 광대’를 떠올리는 한국인들에게 ‘하얀 광대’는 생소한 캐릭터이자 연기법이다. 해외초청 공연 <리차드 3세>의 연출 겸 배우로 국내 관객을 만난 장 랑베르-빌드와 시즌단원들이 ‘하얀 광대 연기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며, 즉흥이 아니라 치밀하게 훈련되고 계산된 연기법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광대로 변해 보았다.

“광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주제여서 흥미로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훈련을 해야 하는 광대 수업을 통해 나라는 배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장 랑베르-빌드(프랑스 리무쟁 국립연극센터 테아트르 드 튀니옹 예술감독)
2018.7.2 — 7 총 24시간

움직임 워크숍 1

연극 배우에게도 움직임이 편하고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평소 움직임에 대해 느끼는 낯설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법을 익혀 표현의 한계를 깨기 위해 안무가 안은미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움직이는 기술을 익히기보다 스스로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게을러질 수 있는 신체와 행동. 자유롭게 자신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강사 안은미(안무가, 안은미컴퍼니 대표)
2018.3.28 — 5.23 총 12일(36시간)

움직임 워크숍 2

‘내 몸 바로 알기’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안무가 밝녕쿨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걷기와 뛰기라는 기본 동작을 통해 미세한 움직임에도 명확한 의도를 가질 것을 배우고, 상대(사람 혹은 사물 혹은 공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리액션이 다음 움직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몸의 감각에 대한 관찰과 내 존재와 공간에 대한 관찰, 그 속에서의 하나의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밝녕쿨(안무가,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대표)
2018.12.7 — 24 총 10일(30시간)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황금명륜(같이교육연구소 대표)
2018.3.8

서계동 워킹 투어

강사 윤인주(안녕서울 대표)
2018.9.17

인문학 강의

강사 유지원(타이포그래피 연구자)
강사 김의철(문화심리학자)
2018.11.7

TYA RESEARCH CENTER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2011년 5월 2일 문을 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작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공연 제작을 통해 청소년 연극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극 제작 및 지역 순회공연, 젊은 작가·배우·연출가·청소년이 협력하는
창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연구 자료 발간, 국제 협력 사업 등이 있다.



사물함

The Locker



작 김지현 연출 구자혜
Written by Kim Jee-hyun
Directed by Khoo Ja-hye

열리지 않는 사물함. 모든 것이 달라졌다. 중간고사를 앞둔 어느 날, 다은이가 사고로 죽었다. 갑작스럽게 친구들을 위한 심리 치료가 시작되고... “우릴 위한 생각은 아닐걸.” 평소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헤민, 한결, 재우, 그리고 연주. “똑같아, 아무 일도 없어.” 그러나 시간은 결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두려움, 의심, 자책, 질투, 회피. 온갖 감정들이 위태롭게 뒤엉켜 굳게 닫힌 다은의 사물함을 자꾸만 두드리게 만든다. “왜 열려고 한 거야?”

In *The Locker*, Da-eun suddenly died one day leading up to the midterm exam from an accident. Her friends were then forced into psychotherapy, but they all thought “it’s probably NOT for us.” Hye-min, Han-gyul, Jae-woo and Yeon-ju just kept preparing for the midterm as usual as if “Everything’s the same. Nothing happened.” But things turn out quite differently from what they expected when precariously tangled emotions including fear, doubt, guilt, envy, and neglect knock on Da-eun’s firmly closed locker door.



©장성용, 정원균(정원조, 이리, 정연주, 조경란)



©워크룸

사물함
The Locker
2018. 4. 20 — 5. 6
소극장 판
15회, 70분

스태프
작 김지현
연출 구자혜
희곡자문 장성희
드라마투르기 전강희
무대 김은진
조명 고혁준
의상 김우성
분장·소품 장경숙
사운드 목소
움직임 이윤정
교육감독 김미정
예술교육 서현재
조연출 김효진
무대감독 나혜민

출연
다은 김윤희
한결 이리
연주 정연주
재우 정원조
혜민 조경란

STAFF
Written by
Kim Jee-hyun
Director
Khoo Ja-hye

Script consultant
Jang Seong-hee
Dramaturg
Jeon Kang-hee
Set
Kim Eun-jin
Lighting
Go Hyek-joon
Costume
Kim Woo-seong
Make-up/Prop
Jang Kyoung-suk
Sound
Morceau J. Woo
Movement
Lee Yun-jung
Education director
Kim Mi-jeong
Art education
Seo Hyeon-je
Assistant director
Kim Hyo-jin
Stage manager
Na Hye-min

CAST
Da-eun
Kim Yoon-hee
Han-gyeol
Lee Ri
Yeon-ju
Jung Yeon-ju
Jae-woo
Jeong Won-jo
Hye-min
Cho Kyung-ran

국립극단 청소년극 <사물함>,
왜 아이들마저 어른을 닮을까
매일경제 김규식 기자

<사물함>에 등장하는 청소년은 모두 5명이다. 편의점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죽은 고등학생 다은이, 다은이의 유일한 친구, 다은이가 일하던 편의점에서 담배를 공수했던 친구, 편의점 사장의 딸, 편의점이 입점한 건물 주인의 딸. 먹이사슬처럼 얹히는 어른의 사회가 그대로 재현됐다. 다섯 친구들이 다은이가 죽은 뒤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극은 전개된다. (중략)

역설적으로 작가는 아픔을 마주하고 돌파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사물함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며 모두 피하지만, 아이들은 안다. 그 냄새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살던 다은이의 삶을 상징한다. 친구들이 모두 죽은 뒤 남겨진 동급생의 모습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한다. 이미 청소년기를 보낸 배우 다섯 명이 교복을 입고 연기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극단 ‘여기는 당연히, 극장’을 이끄는 연출가 구자혜가 연출을 맡았다. 이 작품으로 극작가로 데뷔한 김지현 작가는 “청소년의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청소년극”이라고 정의했다.



©장성용, 정원균(조경란, 이리)



©장성용, 정원균(조경란, 이리, 정연주)



©장성웅, 정원균 (조각)

죽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Die



안무·연출 류장현
Choreographed & directed by
Ryu Jang-hyun

2016년 초연되어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는 청소년들의 절박함을 깨워 낸 <죽고 싶지 않아>가 굳어 버린 심장을 다시 건드렸다. 초연 당시, 관객들의 눈에 잠시 낯설게 보이던 그들의 세계는 이내 거침없는 에너지가 무대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가슴 벅찬 앙코르 요청을 끌어냈다. 2018년 공연에서는 그들의 더 깊은 곳, 더 멀리까지 유명하여 캐내 온 몸짓이 새롭게 합류한 얼굴들과 함께 더 세찬 두드림을 일으켰다. 댄스시어터 <죽고 싶지 않아>는 국립극단의 기존 공연들과는 달리, 춤을 통해 신체성과 역동성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원시적인 삶의 충동, 생명의 욕구를 담은 상상력 넘치는 춤의 언어가 청소년의 언어와 만나 빈 무대를 그들만의 에너지로 가득 채웠다.

In 2016, a seemingly strange performance, *I Don't Want to Die*, quickly won the hearts of the audience who kept chanting “encore” at the end of every show. The empty stage strewn with dancers and their unstoppable energy awakened the zeal of youth in everyone. Again in 2018, the dancers rocked the audience with new movements formed by exploring the deepest and farthest reaches of the soul.

©장성웅, 정원균



©장성용, 정원균(이원준, 나경호, 안승균, 송재윤, 김도현, 유영현)



©장성용, 정원균(이선애)

공연협력회 회의록 중

A. 무용에 기반한 작업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기획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다양한 청소년극을 시도하고 제작해 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행보 안에 놓여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B. <죽고 싶지 않아>는 청소년극이 많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립극단의 작품 대다수가 정극인 것을 고려하면 그 틀을 깨트림으로써 연극의 다양성 혹은 확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국내 연극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공연에 대한 관객 호응도 역시 높았다.



©워크룸

죽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Die
2018.6.15 — 7.1
백성희장민호극장
15회, 80분

스태프
안무·연출 류장현
구성협력·드라마
투르기 염혜원
무대 박상봉
조명 최보운
의상 배경술
소품 권민희
사운드 임서진
음향감독 김형민
교육감독 김미정
예술교육 이호영
조연출 이민정
무대감독 문원섭

출연
강은나 김도현 김지원
나경호 손지미 송재윤
이원준 안승균 이선애
유영현 조현도

STAFF
Choreographer/
Director
Ryu Jang-hyun
Scene editing/
Dramaturg
Yum Hae-won

Set
Park Sang-bong
Lighting
Choi Bo-yun
Costume
Bae Kyong-sool
Prop
Kwon Min-hee
Sound
Lim Seo-jin
Sound director
Kim Hyeong-min
Education director
Kim Mi-jeong
Art education
Lee Ho-young
Assistant director
Lee Min-jung
Stage manager
Moon Once-up

CAST
Kang Eun-ra
Kim Do-hyun
Kim Ji-won
Na Kyung-ho
Son Jee-mi
Song Jae-yoon
Lee Won-jun
An Seung-gyun
Lee Sun-ae
Yoo Young-hyun
Jo Hyeon-do



©장성용, 정원균(김지원, 송재윤)



작 고순덕, 에반 플레이시
연출 피터 윈윌슨
아트디렉터 여신동
Written by
Ko Sun-duck, Evan Placey
Directed by
Peter Wynne-Willson
Art Direction by
Yeo Shin-dong

소년은 저기 바다 건너 영국의 한 아파트에 있다. 영국으로 이민 와서 닥치는 대로 일하는 엄마 때문에 소년은 늘 혼자. 소녀는 저기 바다 건너 한국의 한 아파트에 있다. 어릴 적 떠나 버린 엄마 때문에 할머니와 살고 있는 소녀 또한 늘 혼자. 둘은 얼음 조각처럼 표류하다가 어느 순간 서로를 감지한다. 그리고 모든 게 검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칠 때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쓰러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2016년 한국어로 초연되며 호평받은 <오렌지 북극곰>이 얼음을 깨부수고 새롭게 돌아왔다. 한국과 영국 배우가 함께 무대에 선 이번 공연은 두 개의 언어가 서로 형클어지고 공존하면서 한층 더 치열해졌다. 움짱달짝할 수 없는 빙하 위, 사춘기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이 시대 10대들이 자신만의 좌표를 찾기 위한 여정을 펼쳐 냈다.

Orange Polar Bear, which premiered with an all-Korean cast and received critical acclaim in 2016, returned in 2018 to again break the ice of the North Pole. Thanks to the dynamic presence of both Korean and British actors on stage, the performance became even more intense as the Korean and English characters co-existed, and interacted. Trapped on the ice, two teenagers full of youthful angst and instinctual vigor set out to embark on a new journey to find their coordinates. "OK. Let's vanish, together."





©장성용, 정원균(타히라 사리프, 라자크 쿠코이)

경계를 초월한 청소년극 구현을 위한
첫걸음, 국립극단 <오렌지 북극곰>
한국연극 황승경 편집위원

영국과 한국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를
한 무대, 한 장소에 공유해 관객들의
연극적 상상력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오렌지 북극곰>은 연극 무대를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활용한다. 청소년 관객들은
지구 반대편 청소년들의 미성숙한 자아와
불안한 영혼이 갈팡질팡 방황하는 모습을
직접 체득하게 된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나와
같은 고민을 마주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청소년 관객에게 따사로운 위안과
위로가 될 것이다. (중략)

<오렌지 북극곰>에서 세상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가진 이질적 공간의 소년과
소녀는 미로 게임을 거쳐 결국 일치되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앙상블 멀티 배역들이
선사하는 약방의 감초 같은 능청스러운
연기와 감각적 조명은 극 전반에 잠재된
거친 반항적 분위기를 중화하는 역할을
한다. 차가운 오렌지 북극곰이 결국에
머물러야 할 곳은 뜨거운 심장과 따뜻한
핏줄이 있는 '바로 여기 가족'이라는
보편적 인간 정서를 말하고 있다. 무대
전환의 빠른 템포 조절은 극에 율동적
동력을 부여해 불필요한 느슨함과
피로함을 느낄 수 없게 만들었다.



©워크룸 PHOTO 이강혁

오렌지 북극곰
Orange Polar Bear
2018. 10. 11 — 21
백성희장민호극장
10회, 80분

2018. 11. 1 — 10
영국 버밍엄
레퍼토리시어터
더 도어

공동제작 국립극단,
버밍엄레퍼토리
시어터, 한영시어터
협력
버밍엄시립대학교

스태프
작 고순덕, 예반
플레이시
연출 피터 윈 윌슨
아트디렉터 여신동
번역 유혜련
드라마투르기 테사워커
조명 사이먼 본드
음악 장영규
사운드 임서진
움직임 이윤정
영상 정병목
영상기술 윤민철
의상 나누리, 케이 윌튼
소품 권민희
교육감독 김미정
예술교육 김준호

조연출 문새미
통역 홍수연
무대감독 박수예
공동프로듀서 김미선,
주디 오웬

출연
지영 김민주
윌리엄 라자크 쿠코이
지영 할머니 외
강정임

사라 외 타히라 사리프
지영 아빠 외 홍아론
아더 외 마이클 코쥬

Co-production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irmingham
Repertory
Theatre,
Hanyong Theatre
Association
Birmingham City
University

STAFF
Written by
Ko Sun-duck,
Evan Placey
Director
Peter Wynne-
Willson

Art director
Yeo Shin-dong
Translator
Ryoo Hye-ryun
Dramaturg
Tessa Walker
Lighting
Simon Bond
Music
Jang Yeong-gyu
Sound
Lim Seo-jin
Movement
Lee Yun-jung
Video
Jung Byung-mok
Video technical
director
Yoon Kennikie
Costume
Na Nu-ri,
Kay Wilton
Prop
Kwon Min-hee
Education director
Kim Mi-jeong
Art education
Kim Jun-ho
Assistant director
Moon Sae-mi
Interpreter
Hong Soo-yeon
Stage manager
Park Su-ye

Co-producer
Kim Mi-sun,
Judy Owen
CAST
Jiyoung
Kim Min-ju
William
Rasaq Kukoyi
Jiyoung's grandma
et al.
Kamg Cheong-im
Sara et al.
Tahirah Sharif
Jiyoung's dad et al.
Hong Aaron
Arthur et al.
Michael Kodwiv



©장성용, 정원균(김민주, 마이클 코쥬, 강정임)

일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공연' 창작 연구 과정

2013년부터 지속되어 온 작은극장 사업은 작은 공연의 특별한 가치에 주목하여 창작 워크숍 및 발표회를 진행하고 학교, 도서관,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2018년에는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새로운 창작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4개 팀 배우들이 예술교육 전문가와 협력해 8~19세 어린이청소년을 만나면서 창작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진행했다.

2018. 7. — 8. '작은극장 1교시' 창작진 구성
 2018. 8. 프로그램 연구 및 실행 계획
 2018. 8. — 11. 어린이청소년 공동 워크숍 및 창작 과정
 2018. 12. 5 '작은극장 1교시' 결과 공유회

시간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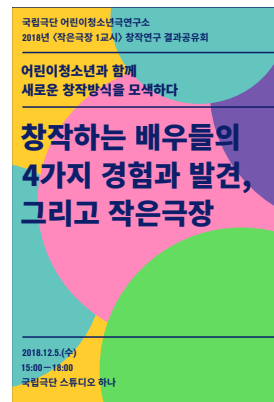
배우 오정은 강효정
 기록 이민서
 교육감독 엄문용
 참가자 북서울중학교 1학년 6반 19명,
 부천양지초등학교 5학년 10명
 워크숍 8회

도깨비 마을에서 덩블링을 잘하던
똥이 이야기

배우 이진아 김두영
 기록 최다운
 교육감독 엄문용
 참가자 부천 양지초등학교 3학년 3반
 24명, 등마초등학교 1학년 3반 24명
 워크숍 7회

나는 뭐야?

배우 고은결
 기록 서현제
 교육감독 이수연
 참가자 문산수익고등학교 1, 2, 3학년
 18명
 워크숍 6회



©A-G-K

4개의 몸 끌라쥬

배우 조아라
 기록 장성실
 교육감독 이수연
 참가자 15~18세 여자 청소년 4명
 워크숍 7회

결과 공유회: 창작하는 배우들의 4가지
경험과 발견 그리고 작은극장

참가자 창작진 및 작은극장 관계자 25명
 2018. 12. 5 15:00 스튜디오 하나

0세부터 3세 관객을 만나기 위한 창작의 과정

24개월 이하 아기들도 연극을 관람할 수 있을까? 연극이 유년기의 출발점에 선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또한 아기들과의 '연극적' 만남이 예술가들에게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국내 작업과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연출가, 미디어아트 작가, 배우, 현대무용가, 음악가 등이 모여 아기들을 위한 연극 창작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았다.

2018. 4. 영유아극 자문 회의
 2018. 6. — 7. '영유아극 창작 연구' 창작진 구성
 2018. 8. 관객 연구 및 실행 계획
 2018. 8. — 11. 워크숍 및 아기 관객 초청 시연
 2018. 11. 23 '영유아극 창작 연구' 결과 공유회

하늘아이, 땅아이

1, 2, 3차 워크숍 총 11일, 아기 관객 초청 시연
 2회(강원도 화천 예술터밭)

책임예술가 이주야
 배우 서선영 최수진
 음악감독·연주 김재훈
 공간협력 배요섭
 기록 우현용
 교육감독 배혜진

영유아극 리서치

1, 2, 3차 워크숍 총 15일, 아기 관객 초청 시연
 2회(국립극단 연습실)

책임예술가 전유진
 배우 이미라 이지형
 미술감독 조항미
 기록 한선영
 교육감독 배혜진

해외 자료 연구

Wide Eyes—Celebrating curiosity
 through vision and practice, Roberto
 Frabetti et al., Edizioni Pendragon,
 2018.
 유럽 small size 관련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해외 영유아극 14편 창작 사례 및
 작품 정보 수록



©채드 박

Theatre for early years—Research in
 performing arts for children from birth to
 three, Wolfgang Schneider, Peter Lang
 GmbH, 2009.

3세 이하 아기 관객을 위한 공연예술 자료로
 영유아극의 미학, 공연의 특성, 주요 국가의
 사례 수록

결과 공유회: 24개월 이하 아기 관객을 만나기
위한 창작의 과정

참가자 창작진 및 영유아극 관계자 등 35명
 2018. 11. 23 14:00 소극장 판

청소년과 예술가의 흥미로운 충돌과 파장 ‘위험한 놀이터’, ‘듣는 시간, 들리는 공간’

청소년예술가탐색전은 청소년의 언어와 장르 융복합 연극 형식을 연구하기 위해 청소년과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함께 서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는 연출가 김경희, 사운드 디자이너 목소와 함께 청소년기의 안과 밖을 탐험하며 ‘위험한 놀이터’, ‘듣는 시간, 들리는 공간’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한 전시 <9개의 큐알 - 서계동 1번지>를 통해 국립극단의 공간을 10대의 시선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2018. 4. 주제 선정 및 워크숍 계획
2018. 5. 청소년 참가자 모집
2018. 6. 7 — 23 1차 워크숍
2018. 7. 12 — 27 2차 워크숍
2018. 7. 27 내부 쇼케이스
2018. 12. 자료집 발간

위험한 놀이터

#몸과 사회, 생존, 시스템, 일상 공간

책임예술가 김경희

리서치 이미경

연기코치 윤진성

파쿠르코치 김래영 외

참가자 강이랑(15세) 김정은(18세)

김현원(18세) 김호민(18세) 남윤주(19세)

박재영(19세) 신혜수(18세) 조윤경(18세)

황동영(19세) 9명



©김준호

듣는 시간, 들리는 공간

#소리, 사운드 디자인, 세계, 리듬

책임예술가 목소

창작협력 강하늘

드라마투르기 전강희 외

참가자 권지윤(18세) 김지원(15세)

이예지(15세) 박채은(18세) 송현주(15세)

정다은(18세) 정재학(18세) 황웅비(18세)

황지원(18세) 9명

청소년극의 새로운 소재와 희곡 발굴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는 청소년극 텍스트를 개발하고 국내 창작 희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작가와 연출가, 배우가 협력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는 희곡 공모와 지정 작가를 통해 김태형, 허선헤, 장영 3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시선과 울림을 담은 희곡 <여름방학>, <병목안>, <G의 영역> 3편을 개발하고 낭독 공연으로 선보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2018. 4. 27 희곡집2017 발간

2018. 5. — 7. 희곡 공모 및 지정 작가 선정

2018. 9. — 11. 창작팀 공동 작업 및 청소년 협력

2018. 11. 16 — 18 3편 낭독 쇼케이스 및 관객과의 대화

참여 작가 선정: 지정 작가 1명, 희곡 공모 지원자 42명 중 2명, 총 3명 선정

청소년극 희곡 개발: 연출가 공동 작업 및 배우, 청소년 협력을 통해 <여름방학>, <병목안>, <G의 영역> 3편의 청소년극 희곡 완성

<G의 영역> 3편의 청소년극 희곡 완성

낭독 쇼케이스: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6회 공연, 431명 관람, 관객과의 대화 3회



©채드 박

<G의 영역>

작 장영

연출 이연주

출연 박수진 이세영 허진 황순미

2018. 11. 16 18:00

2018. 11. 17 16:00

<여름방학>

작 김태형

연출 김한내

출연 안지환 강희제, 전수지 문현정

백종승 김정환

2018. 11. 16 20:00

2018. 11. 18 14:00

<병목안>

작 허선헤

연출 김미란

출연 이종민 박소연 전선우 서지우

2018. 11. 17 14:00

2018. 11. 18 16:00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는 어린이청소년극 분야의 정책 및 방법론 연구, 해외 사례 조사 등 지속적인 리서치와 학술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도 새로운 연극을 실험하는 청소년과 예술가의 다각적인 협력 사례를 조사, 정리하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소년의 ‘안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여 공연예술 작업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18. 5. — 10. 주제 연구 1
2018. 11. — 12. 주제 연구 2 및 연구 보고서 발간

주제 연구 1
청소년과 예술가 협력 사례 연구 1,2

- 1 국립극단 공연제작 연계 예술교육 사례 책임연구 순서회
- 2 국립극단 청소년예술가탐색전 춤, 옷, 말 사례 및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역할 책임연구 강윤아
- * 연구 보고서 1,2 각 100부 발간

주제 연구 2
청소년 참여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위한 극장·극단의 지침 및 규정에 관한 조사 연구:독일,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자료를 중심으로

책임연구 윤원혜
공동연구 윤혜정
독일 자료 조사 및 번역 소나기랩(sonagilab)
이유진 이은서 정지은
번역 박민정 양혜리 이승아



©주우미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창작 파트너

‘청소년 17인’은 청소년극의 이야기와 형식을 함께 탐구해 나가는 창작 파트너이다. 공연예술 분야와 작품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모집하여 예술교육을 통해 청소년극 제작에 참여하게 한다. 선정된 청소년들은 리서치 파트너이자 창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창작 주체로 협력하고 있다.

2018. 2. 20 — 3. 11 모집 및 선정
2018. 3. 16 — 10. 19 공연 연계 예술교육 진행
2018. 11. 30 해단식

참여 청소년:강이랑 김새얼 김정은 김주리 김지원 김현원 박채은 송가현 신성지 염정은 윤광석 정다은 조수진 주혜민 최세진 황웅비 허경무 17명

공연 연계 예술교육

〈사물함〉

2018. 3. 16 — 4. 27, 7회
교육감독·주강사 김미정
보조강사 서현제

〈죽고 싶지 않아〉

2018. 5. 11 — 6. 17, 7회
주강사 이호영
교육감독·협력강사 김미정

〈오렌지 북극곰〉

2018. 9. 7 — 10. 19, 8회
* 이야기판: 10. 13
교육감독·주강사 김미정
협력강사 김준호

청소년예술가탐색전

청소년 17인 중 12명 참여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청소년 자문단으로 7명 참여

연극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른들의 시선이 아닌,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 연극을 본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맘 편히 공감하고 느끼는 감정 그대로 터뜨리고... 위로가 되었음 해요. 우리들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 청소년 17인 인터뷰 중에서



©김병구

명동예술극장

관객 중심의 레퍼토리 극장을 추구하는 명동예술극장은 서울 시내 한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1957년부터 1975년까지 국립극단의 공연장으로서 현대 한국 연극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유서 깊은 공연장이다. 2009년 외부 벽면은 옛 모습 그대로 남기고 내부를 전면 리모델링하여 국내 최고의 무대 시설을 갖춘 558석 규모의 중극장으로 탄생했으며, 2015년부터 국립극단의 주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대가 정면과 좌우 3차원의 객석으로 둘러싸여 친밀감을 유도하고 ‘창작자와 관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여 객석과 무대 간의 거리가 가까우며, 무대 크기와 여유 공간을 넉넉히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형식의 연극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백성희장민호극장은 작가 중심의 창작 극장을 지향하며 동시대 극작가의 문제작을 주로 상연하는 공연장이다. 16x11m 규모의 기본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 운영은 200~400석까지 변화가 가능하며,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마당극 형태부터 프로시니엄, 대칭 등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실험적 극장이다. 특히 1자 개념을 30cm로 적용, 무대 바닥 기본 사이즈를 3x6자(90x180cm)로 설정해 바닥 그 자체를 평면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역시 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소극장 판은 연출가 중심의 실험 극장을 지향하는 공연장으로 ‘연출의 판’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 개발 및 창작 실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10x13m의 기본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 운영은 사방으로 가능하며 100명 규모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가변형 무대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등을 실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관객석에서 무대로 다리를 아래로 내리고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극장이다.



소극장 판

Myeongdong Theater

Located in the heart of downtown Seoul, Myeongdong Theater has served as the main venue for the beloved repertoires of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since 2015. In fact, the theater building has long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n theater starting from 1957 until 1975 when it housed the company and again from 2009 when it reopened after a complete make-over. While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has remained untouched to preserve and reflect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e theater within was reconfigured to incorporate 558 seats and minimize the distance between the seats and the stage allowing audience members to have better views from any angle. In addition, the renovated stage design provides greater versatility that can accommodate almost any production satisfying actors and audiences alike.

Baek Seonghui & Jang Minho Theater

Located just behind Seoul Station, Baek Seonghui & Jang Minho Theater is a playwrights' space that can house from 200 up to 400 audience members and is specifically designed to showcase contemporary new writing. The basic size of the stage is 16 by 11 meters, and is made up of 3 x 6 units of smaller parts sized 90 x 180 centimeters each. The versatile stage can be easily configured into an arena, proscenium, or thrust stage, and the multi-functional aspects of the theater space can easily accommodate various styles of production.

Theater Pan

Also located in the same complex behind Seoul Station, Theater Pan is a space mainly designated for theater directors' experiments and works in progress including showcases of the "Director's Pan" project. The size of the theater is only 10 x 13 meters. The adjustable stage is positioned lower than the seats which are designed like steps. With an audience capacity of up to 100 seats, the studio can be readily transformed to accommodate different production requirements.



강해진
〈성〉〈오슬로〉〈록앤롤〉



김수아
〈3월의 눈〉〈페스트〉〈오슬로〉



김한
〈3월의 눈〉〈페스트〉〈록앤롤〉



이호철
〈3월의 눈〉〈얼굴도둑〉〈오슬로〉



임준식
〈성〉〈페스트〉〈오슬로〉



장지아
〈성〉〈페스트〉〈록앤롤〉



박가령
〈성〉〈운명〉〈호신술〉



박경주
〈성〉〈운명〉〈호신술〉



양서빈
〈3월의 눈〉〈운명〉〈록앤롤〉



정세별
〈성〉〈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록앤롤〉



정원조
〈사물함〉〈오슬로〉〈록앤롤〉



조남웅
〈3월의 눈〉〈페스트〉〈오슬로〉



이수미
〈3월의 눈〉〈운명〉〈텍사스 고모〉



이원희
〈3월의 눈〉〈페스트〉〈호신술〉



이종무
〈3월의 눈〉〈운명〉〈록앤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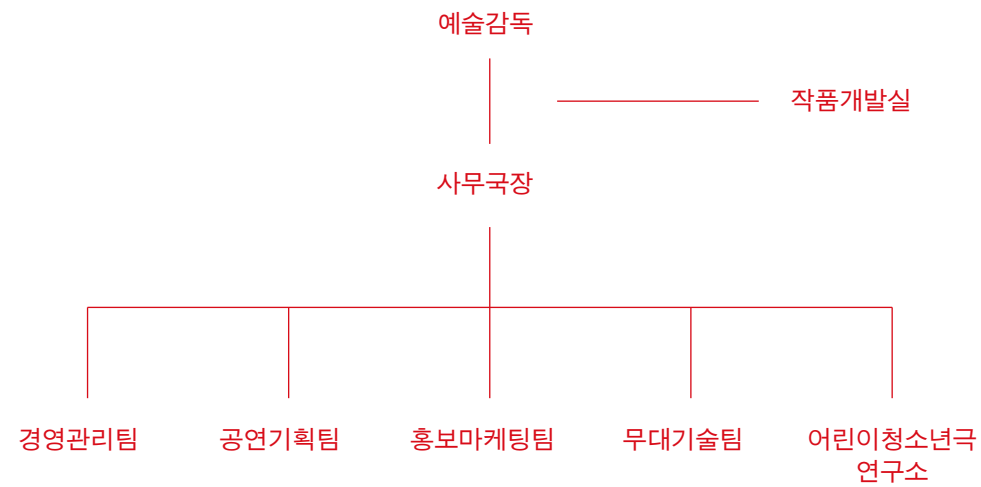
주인영
〈얼굴도둑〉〈운명〉〈텍사스 고모〉



최지훈
〈성〉〈오슬로〉〈록앤롤〉



홍아론
〈성〉〈운명〉〈오렌지 북극곰〉



이사회
이사장(비상임)
김상헌 네이버(주) 경영고문
대표이사(상임)
이성열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사(비상임)
고희경 홍익대학교 교수
이사(비상임)
이상우 고려대학교 교수
이사(비상임)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사(당연직)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이사(당연직)
김철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감사(비상임)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지영림 안병균 김소연
공연기획팀 지민주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김소현 이아름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이정민 오지수 이다영 이송이 김효진
김나래 김수현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소여진
무대기술팀 신용수 김무석 김용주 김승철
신승호 음창인 최슬기 홍영진 류선영 임채호
이병석 임수연 박지수 박정현 김민주 윤성희
주원국 김태진 김민정 나누리
경영관리팀 정광호 신민희 현승은 정병욱
박지민 박예원 최태영 이민주 이민희 김시내
주현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김미선
손준형 최은정 권은지

국립극단 2018

발행일 2019년 4월 30일

발행인 이성열

발행처 재단법인 국립극단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t. 1644 2003 f. 02 3279 2269

www.ntck.or.kr

기획 국립극단 작품개발실

(실장 정명주, 담당 안병군 나수경)

2018년 공연합평회 참가 위원

김방옥, 채승훈, 남명렬, 홍원기,

김일송, 고주영

편집 및 교정 정은주

디자인 민진아 KioskKiosk

인쇄 문성인쇄